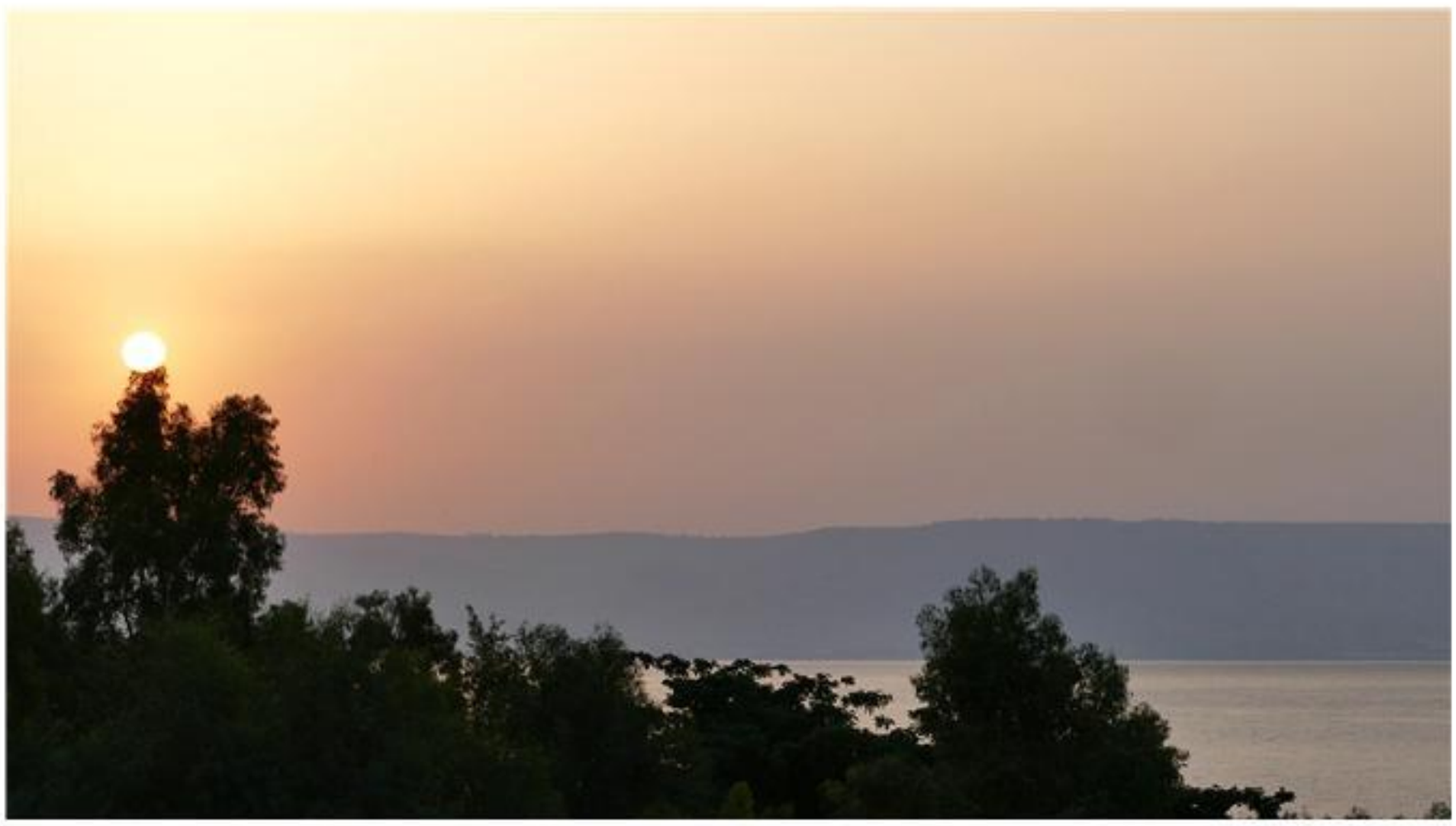
2021 01 Vol. 367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새해 덕담



진심으로 서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말이나,
감사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합니다.
서로 좋은 기분을 갖게 되지요.

용기를 주는 말,
관대한 말,
자비를 베푸는 말
역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떠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서로 간직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 영적이고 진솔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서로 솔직하고 진지할 때 무관심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서도 안됩니다.
하느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그분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느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CONTENTS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새해 덕담

03 차례

04 권두언/ 김형신(이냐시오) 신부
사랑하는 가르멜 재속회원 여러분들께!

06 강의/ 김영문(브루노) 신부(1)
성경에 나타난 협상과 조정

10 강의/ 이인섭(필립보네리) 신부(1)
순명과 참사회의 운영

13 옹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예수 그리스도 인성(人性) 현존 수업

14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48)

16 자서전 연구/ 토마스 알바레스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24)

20 영성/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나는 하느님 뵙기를 원합니다(15)

24 영혼의 성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1)

28 어두운 밤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17)

32 예수의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인내

35 선교/ 양상륭(도미니코) 신부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7 회원의 글/ 장혜영
종신서약 준비 피정에서

38 묵상/ 윤원조(리드비나)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40 공동체 이야기/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가르멜의 꽃핀 가지

44 회원의 글/ 서울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하느님 찾아 떠난 루치아에게

45 독자후기/ 임성미(마리아)
"영적 지도자" 묵상 글을 읽고

46 교육후기/관구 참사회
2020 한국관구 참사회 교육

47 마음의 샘

48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2)
2021년 3월 영적나눔

50 가르멜 영성 문화 센터

52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박지현(요셉피나)
나, 이런 여자예요

54 비둘기

56 그림단상

표지그림

사 랑(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 작가 소개:
회화를 전공하고 파리8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다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봉직하였다. 현재, 본 회의 단독회원(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으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67호 (2021 1. 1) **의장:** 공원순 부활의 효임골롬바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한국 재속 가르멜회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수도회 http://carmel.kr**
관구 재속 가르멜회 계좌(우리은행) :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 권두언 ＊

사랑하는 가르멜 재속회원 여러분들께 !

김형신(예수의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이 혼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로 인해 재속회 월모임을 비롯하여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모임의 취소와,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양성의 부재 및 재속 회원들 간의 친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겨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이로든 연피정이 진행 되었고, 종신 서약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사회에 계신 분들과, 양성을 맡고 계시는 양성 책임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 상황을 견디어 낸다면,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들이 더욱 힘을 모아서 주님 안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재속회원분들이 우리 수도회를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더욱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소하지만 성의로 받아달라고 수줍게 봉투를 내미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회를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가슴 뭉클한 한 해였습니다. 관구장 소임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수도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재속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지만,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게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안에서 가르멜 재속회와 맺은 관계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큽니다. 이제 곧 한국 교회 안에서 가르멜 재속회는 설립 75주년이 되고, 남자 가르멜 수도회는 설립 50주년이 다 되어 갑니다. 50년의 시간동안 남자 가르멜 수도회와 가르멜 재속회 간에 인연을 맺어 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되고 성숙된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3년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르멜 남자 수도회는 '일치와 친교'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의 3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치와 친교' 는 작은 범위로 본다면 우리 수도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일치와 친교' 도 되겠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가르멜 수도회와 가르멜 재속회 간의 '일치와 친교' 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도회 안에서 개최된 관구 세미나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치와 친교' 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을 때, 다수의 형제들이 수도회안에서 형제들 사이의 '소통' 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회와 재속회 사이에서도 '소통' 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회에 대해 마냥 좋기만 하고 너그럽기만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때론 수도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으로 참고 견디어 내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수사님들이 사제로서 혹은 수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언행이 있었을 때나, '사제와 평신도' 라는 관계 안에서 부당함을 느끼셨을 때에도 참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속회 운영에 대해서 수도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신 경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충고나 주의 혹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소통' 이 저희 남자 수도회와 가르멜 재속회의 발전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수사님들의 언행으로 인해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회원들이 계시거나 혹은 재속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회원들이 계시다면 수도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도회를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듯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르멜 영성 문화 센터' 의 소성당에서 기도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한 복판에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할 일인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마산, 광주 각 수도원이 큰 수도원으로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 그리고 재속회 여러분들, 후원회 여러분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만큼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앞으로 저희 '남자 가르멜 수도회' 와 '가르멜 재속회' 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과 관심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멜 재속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 강의 *
* 2020년 전국 참사회 교육

성경에 나타난 협상과 조정(1)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광주 가르멜 수도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지리적 차이, 환경 차이, 성격차이, 학력의 차이, 직책의 차이, 세대차이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무난하게 살고 있는가? 왜 누구와 대립하고 있고, 누구와 충돌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는 자주 방어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닫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지고 그와 같이 있으면 긴장된다. 신앙인인데,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 서로 개방하며 형제애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는 없는가?

오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 "협상과 조정"에 대해 살펴본다.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나 단체에서 서로 화목해지고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길을 찾아본다.

알다시피 하느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말씀은 서로 이 형제애를 건설해야 세상이 더욱 인간적이며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분쟁 상태를 극복하고, 화합하고 공생하는 관계가 일어날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란 존재가 충만하게 실현되는 것! 분쟁과 갈등은 다른 존재가 나를 더 충만하게 실현시킨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내 인격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존재를 없애고자 하고 상대를 부정한다. 결국 상대는 나에게 장애물이고 방해물이다. 그래서 갈아 치우고 싶고, 없애 버리고 싶어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없애고자 한다. 상대방도 내가 장애물이고 방해물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온다. 사실 가르멜 영성은 나란 존재를 없애는 것이다. 나의 포기요, 나의 이탈이요, 나를 없애는 것이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니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결코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협상, 협의"를 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마태 10,31)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자가 되려면, 도중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가벼운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먼저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도 예측을 해서, 단단한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위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위의 비유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논쟁에서, 혹은 적대자와의 갈등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지혜를 준

다. 어떤 임금이 군사가 만 명이 있는데, 다른 임금은 군사가 이만 명이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 만 명의 군사 쪽이 부상과 죽음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평화롭게 협정을 청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상처와 피해와 고통이 없도록 협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복음에서도 협의와 화해에 대해서 말한다.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마태 5,25)

고소한 자와 나 사이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지금 그와 함께 있다면,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고소를 당하면 재판에 가야 하고, 돈 들고, 옥리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기 전에 지금 협의하고 화해하는 것이 좋다. 큰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대처하고 수습을 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과 협상과 조정을 해야 할까? 참고로 이다음 내용들은 "원수와 형제가 되다" 라는 암브로지오 스프레이파코 지음, 박 요한 영식 신부님이 옮긴 책 내용이다. "성서와 함께" 에서 발행한 도서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분쟁과 갈등, 적대관계의 예시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협상하고 조정하는가를 살펴본다.

첫째, 이런 사람이 분쟁과 갈등에서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모두 나와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게 좋게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창세기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창세 4,2-12)가 있다. 카인과 아벨은 서로 다르다, 많은 차이들이 있다. 카인과 아벨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 서열의 차이: 카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 직업의 차이: 카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목자. 외형의 차이: 카인은 힘센 남자, 아벨은 약하다. 활동의 차이: 카인은 땅에서 일하고, 아벨은 목자로서 일한다. 업적의 차이: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바치고, 아벨은 양의 맏배와 굳기름을 주님께 바친다. 평가의 차이: 카인의 제물은 주님이 굽어보지 않았다. 아벨의 제물은 주님이 기꺼이 굽어보았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창세 4,4-7)

카인은 아벨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겪었고, 또한 자기 생각과 다른 하느님의 응답을 보았다. 카인이 화가 난다. 나와 다르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분노한다.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업적과 서로 다fms 평가가 있고, 서로 차이가 있다는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카인은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다양성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하는 일을 중심으로 본다.

자신의 기대와 반대이면 화가 난다. 오히려 강하고 열심한 내가 아니라 약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지지 받으면 분노한다. 카인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똑같고 공평해야 하는데, 차이가 나서 화가 난

다. 상황이 자기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서 화가 난다.

하느님은 약한 이를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카인은 하느님도 자신의 제물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생각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다. 하느님의 판단 기준은 자주 우리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1사무 16,7)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느님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도 선하게 대하면서 밝은 얼굴로 기쁘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카인은 나와 다른 아벨과 대립하고 대결하며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카인은 자신과 다른 아벨에 대해서, 좋은 태도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의 유혹에 끌리고, 악을 행하고 만다.

카인은 대화 능력이 없었다. 아벨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능력을 갖지 않았다.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대자를 없애는 것을 생각한다.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아벨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느님은 아무리 서로 맞지 않아도 형제애를 원한다. 카인을 불러 형제 관계를 확인하고 묻는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창세 4,9) 특히 카인이 한 행동, 카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 묻는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세 4,9) 카인은 미워하는 아벨이 같이 살아야 할 형제이다.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한다. 같이 사는 형제, 자매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지체로써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형제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너와 분쟁과 갈등에 있는, "네 형제, 네 자매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

둘째, 이런 사람이 분쟁과 갈등에서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서로 평화를 이루고, 형제적, 자매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영역, 함께 일하는 분야에서 자주 분쟁과 갈등 중에 있다고 할 때,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서로 평화로워지고, 형제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주 보고 만나야 하고 함께 공생공존해야 한다면, 사랑, 형제애 등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한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창세 13,1-9)을 다루는 이야기가 있다.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같은 땅에서 함께 목축업을 하는데, 분쟁이 발생한다. 땅이 너무 좁고, 가축들은 많았다. 그래서 현재의 땅에서 두 가족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카와 두 가족의 관계의 공존이 위태로워지는 분쟁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두 가족 관계가 평화로워지기를 원한다.

과연 분쟁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두 가족의 무리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뜻이 더 적법하고 옳다고 말하기보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기보다, 더 크고 중요한 나와 그 사람의 사랑의 관계, 애덕, 형제애를 우선시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늘 생각하고 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 과연 어느 지역에 더 적합한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브리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적법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다. 형제적 사랑이라는 관계를 생각한다. 그래서 좁은 땅을 버리고 떠나서 더 넓은 땅을 찾아서 나누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판단과 결정을 내세우고 주장하지 않는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목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한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창세 13,9)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형제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한다.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넘기면서, 형제관계가 서로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유지되도록 한다.

그러자 하느님이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알려주신다.(창세 13, 14-15)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중요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대립하고, 논쟁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고와 판단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규정들로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시 어떤 규정해줄 더 높은 사람,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늘 권위 있는 사람을 찾고, 결정 내려줄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높은 사람이 결정을 내려주어서 모든 논쟁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제 모두 받아들이는 것 같고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흥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항심을 가진다. 서로 앙금만 남고.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이 갈라진다.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이 갈라진다. 한 형제라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희생과 양보, 포기가 있어야 한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유하고 계속 하나의 일을 한다면, 형제애,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호에 계속)

＊ 강의 ＊

＊ 2020년 전국 참사회 교육

순명과 참사회의 운영(1)

이인섭(십자가 성체성혈의 펄럽보네리) 신부
인천 가르멜 수도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참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되는 것이 순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참사회는 재속회원들이 순명해야 할 의사결정을 하는 집행기구로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때론 참사회의 결정이 참사로서 혹은 회장으로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참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참사회가 일치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순명의 덕 때문입니다. 즉 내 의견 보다 참사회의 결정을 늘 우선하는 자세가 참사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평화를 가져오는 내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속회는 우스갯소리로 회장이 다섯 명이라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도 한 표이나도 한 표이니 직책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댓빵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모습이겠지요. 이런 참사회에는 주장만 있지 순명은 없습니다. 그럴 때 참사회는 스트레스와 싸움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모습이지요.

예전에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삼덕 중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를 보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명이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온 삶의 고집, 스타일, 가치관 등등이 이미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되어 갑니다. 이런 면에서 나이가 들수록 순명이 어렵다는 말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명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서약하신 순명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순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란 이미지가 아닐까 해요. 순명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가 외형적으로는 맞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순명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내적으로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란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순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1. 순명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2. 순명은 권위를 위임받은 이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의 내적 자유의 표징이다.
3. 순명은 타인이나 장상의 원의에 대한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원의나 요청 안에 들어 있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유의 행사이다. 그러므로 순명은 내적 자유의 특별한 표현이 된다.
4. 순명은 하느님의 음성과 계획을 귀담아듣게 만들고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5. 회칙에서 순명 서약은 우리 자신의 개인 생활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도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이끄는 신앙 행위이다. 그러므로 재속 가르멜회 회원은 하느님의 길을 식별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공동체와 본회를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들 즉 공동체 참사회와 관구장 및 총장과 자유로이 협력한다.

순명에 대한 5가지 정도의 정의를 제시해 보았는데, 이 5가지 정의에서 순명의 핵심적인 요소로 뽑아낼 수 있는 단어가 보입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뜻', 둘째는 '자유' 란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뜻' 이란 단어가 순명 안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자유' 란 단어는 순명 안에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떠오르게 합니다. 순명 안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은 바로 내가 내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순명을 자신에 대한 희생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봉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순명을 위한 내 의지의 봉헌을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직책에 임명되는 날 자유롭게 봉헌하는 선물로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내 의지를 선물로 드린다고 할 때 이 선물은 비록 비천하고 궁핍한 소임 가운데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소임을 통해 매일 쇄신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하느님께 매일 여러분의 의지를 순명이란 그릇에 담아서 선물로 봉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명으로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된 욕구의 대상이 욕구를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인식된 '소고기가 먹고 싶다' 는 욕구를 자극하고 자극된 식욕에 의지가 수동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를 수동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인용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이 모든 인간의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첫 번째 욕구의 대상으로서 작용하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식욕, 성욕, 권력욕, 명예욕 등등이 인식하는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이 우리의 첫 번째 욕구의 대상으로 나타나다가, 영적으로 차츰 하느님이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 욕구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의지의 선택을 이끄는 가장 최종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잠언 21장 1절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흐르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하느님이 우리의 의지에 언제나 개입한다고 확신했지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은총과 자유결단' 이란 저작에서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작용하여 그의 의지를 하느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 말을 하느님이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 성인은 하느님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하느님이 의지를 변화시킬 때, 하느님은 이제까지 존재하던 경향을 다른 경향으로 대체하도록, 그리하여 첫째 경향이 사라지고 두 번째 경향이 남게 되도록 의지를 변화시킨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느님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경향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경향은 과거에 비슷하게 반복되어 온 선택과 이미 학습되어 익숙해진 행위의 방향이나 지향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향을 바꾼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을 바꾸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경향, 습성 등을 다르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어떤 순간 우리의 특정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김새를 만드는 이런저런 경향이나 습성들을 변화시켜서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를 통한 의지의 변화를 위해 하느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습성의 주입과 은총의 주입입니다. 주입이란 말이 왠지 하느님이 주사기로 어떤 습성이나 은총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이미지로 다가오지요.

토마스는 죄인은 악한 습성 때문에 의지의 심리적 연속성 안에 악을 향한 힘과 경향을 만드는 죄들 때문에 죄를 피할 능력이 없어서 하느님은 새로운 습성을 주입하거나, 하나의 경향을 다른 경향으로 대체시켜서 인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습성의 주입, 은총의 주입과 같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은총의 주입 = 의지의 변화

습성의 주입, 은총의 주입과 같은 말을 들어보면 하느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세 가지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십니다.

1. 인간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주심을 통해 그 가능성에는 죄의 선택도 포함되어 있지요.
2. 인간에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심을 통해
3. 지성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의지를 주심을 통해, 즉 인간은 생각으로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왠지 욕망에 끌리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선택을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것이 가능할 만큼 자유롭고 강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100퍼센트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인격적 관계를 영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전히 자유로운 순명 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옹달샘 ＊

예수 그리스도 인성(人性) 현존 수업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가르멜 수도원

"나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선(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가까이 모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자 4, 7) " 나는 그리스도를 다만 '인간으로서처럼(como hombre)'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9, 6)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성(人性) 현존 수업' 을 하셨습니다. 성녀께서는 우리에게 " 여러분 안에 계신 인성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라" 고 하시면서, "잘 안되면 자신을 강요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수 영(靈)이나 천사가 아니므로 순수 영이신 하느님을 직접 뵐 수 없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요한 14, 6)라고 하셨습니다.

순수 관상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방해가 되므로, 심지어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잠깐 빠지셨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것은 속임수였다." 라고 하시면서, "뼈에 사무친 슬픔 없이는 그것을 돌이켜 생각할 수 없다" 라고 뼈저린 후회를 하셨습니다. 성녀께서는 지도 신부님께, "신부님께서 아무리 높은 관상의 경지에 도달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곡히 권고하셨습니다.(자서전 22장 참조)

우리는 막연하게 '신 중심' 기도로 하느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기도의 스승' 이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성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완덕 28, 5; 자 4, 7; 고전 3, 16; 6, 19; 2고전 6,16; 1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人性) 현존 수업」을 통해 하느님 현존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짝으로 삼고 동반하며" (완덕 26, 1) 예수님과 "마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완덕 26, 3) 마음과 눈이 서로 마주치고 만날 때 "우정의 나눔" (자 8, 5)이 이루어지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 셀리나에게 하신 말씀)를 이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 셀리나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로 늘 마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 (요한 10, 30)라 하셨고,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 14, 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48)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13.2. 아프리카, 인도양, 아시아의 가르멜 수녀원

13.2.1. 아프리카, 인도양의 가르멜 수녀원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 가르멜 수녀원이 진출한 것은 대략 19세기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첫 번째 가르멜 수녀들은 올로롱-생트-마리(Oloron-Sainte-Marie) 가르멜과 포(Pau) 가르멜 출신의 6명의 프랑스 수녀들이었다. 이는 1872년 10월 28일의 일이었다. 이 창립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알제리의 카르타고 대주교였던 샤를 라비제리(Charles Lavigerie) 추기경이었다. 처음에 프랑스 수녀들은 알제리에 정착했다. 하지만 1874년 생-페르디난트(Saint-Ferdinand)로 이전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알제리로 돌아와야 했으며 1891년 수녀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녀원은 1911년 마침내 폐쇄되고 말았다. 이와 별개로, 1885년 프랑스에서 온 성소자들로 카르타고 가르멜(튀니지)을 창립했다. 훗날, 이 수녀원이 문을 닫자, 알제리 가르멜의 수녀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창립된 수녀원은 1921년 5월 21일에 세워진 마다가스카르의 베타포(Betafo) 가르멜이다. 그러나 이 수녀원은 훗날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로 이전하게 된다. 가르멜 성소자가 늘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3개의 수녀원이 더 창립된다: 피나난소아 가르멜(Finanantsoa, 1958), 헬렌보카-톨리아리 가르멜(Helenboka-Toliary, 1975), 마융가 가르멜(Majunga, 1991). 인도양에는 모리스 섬과 레위니옹(Réunion) 섬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캐나다의 몬트리올 가르멜이 1975년 본토레 가르멜(Bonne Torre)을 창립했다. 레위니옹에서는 1983년 레자비롱(Les Avirons)에 마다가스카르 출신 수녀들이 수녀원을 창립했다. 네 번째 수녀원은 이집트에 창립되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자(1914-1918), 예루살렘 가르멜 수녀들은 1914년 카이로로 피신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계속되는 이집트 신자들의 요청으로 이집트에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는 모험을 감수했다. 이렇게 해서 1927년 마타레야 근교에 수녀원이 창립되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살던 곳이다. 그 후, 마타레야(Matareya) 가르멜은 파윰(Fayoum) 오아시스로 이전했다.

1931년 9월 영국의 달링턴 가르멜(Darlington)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보니아(Rivonia)에 수녀원을 창립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35년 리보니아 가르멜은 짐바브웨의 불라와요(Bulawayo)에 수녀원을 창립했다. 그러나 이 수녀원은 2년 후에 폐쇄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참 후, 리보니아 가르멜은 카보(Cabo) 근처에 윈버그 가르멜(Wynberg, 1952), 마피켕 가르멜(Mafikeng, 1992)을 창립했다. 한편, 스페인의 카디스 가르멜은 모로코에 탠지어 가르멜(Tanger, 1934)을 창립했다. 또한, 같은 해인 1934년 벨기에에서 일단의 수녀들이 콩고 민주공화국(당시 자이

레)에 도착해서 카브웨 가르멜(Kabwé, 1934)을 창립했다. 이 수녀원은 훗날 1984년에 카낭가(Kananga)로 이전했다. 그 이후에도 콩고에는 다음과 같은 수녀원들이 순차적으로 창립되었다: 부니아 가르멜(Bunia, 1946, 1975년에 폐쇄됨), 킨샤사 가르멜(Kinshasa, 1962), 루붐바시 가르멜(Lubumbashi, 1964).

아프리카 동부에 속하는 케냐에는 1938년에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햄프턴 가르멜(Dublin-Hampton)이 이 창립을 주도했다. 이들은 리스무루 가르멜(Lismuru, 1938)과 나이로비 가르멜(Nairobi, 1940)을 창립했다. 세네갈에는 1950년 프랑스의 숄레(Cholet)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했다. 이들은 다카르 가르멜(Dakar, 1950)을 창립했으며, 3년 후인 1953년에 공동체를 세비토칸(Sebitokane)으로 이전했다. 르완다에는 콩고의 카브웨 가르멜에서 진출했다. 이들은 1952년에 자자 가르멜(Zaza)을 창립했다. 여기서부터 키갈리 가르멜(Kigali, 1969)이 나왔다. 키갈리 가르멜은 레메라 가르멜(Remera, 1978)을 창립했다. 한편, 자자 가르멜은 1975년 키갈리 가르멜과 통합하게 된다. 이어서 키갈리 가르멜은 시앙구구 가르멜(Cyangugu)을 창립했다. 카메룬에는 1953년 프랑스 루베(Roubaix)의 가르멜 재속회원들이 진출했는데, 이들이 직접 주도해서 에튜디-야운데 가르멜(Etudi-Yaundé)을 창립했으며, 이들은 1969년 교회법적으로 맨발 가르멜 수녀원으로 승인받게 된다. 한편, 1987년 이태리 북부의 롬바르디아 관구 내의 여러 수녀원들은 연합해서 카메룬에 수녀원을 창립했다. 그리고 이어서 1991년에는 피길 가르멜(Figuil)도 창립했다.

한편, 앙골라에는 1964년 수도인 루안다(Luanda)에 첫 번째 가르멜이 창립되었다. 이 창립은 스페인의 우베다 가르멜, 토르데시야 가르멜, 하엔 가르멜, 바에사 가르멜이 연합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수녀원은 1975년 새로운 국가가 독립되면서 폐쇄되고 말았다. 그 후, 1983년에 루방구(Lubango)에 새로운 수녀원 창립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1985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모잠비크의 경우에는 1964년 파티마 가르멜이 초케 가르멜(Chokwe)을 창립하면서 진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77년 모잠비크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초케 가르멜 수녀들은 그곳을 떠나 브라질로 피신해야 했다.

우간다에는 벨덴 가르멜(Welden)이 진출했으며, 이 수녀들은 미야나 가르멜(Mityana)을 창립했다. 나이지리아에는 1974년 아일랜드의 녹트란킬라(Knock-Tranquilla) 가르멜이 오웨리 가르멜(Owerri)을 창립했다. 콩고 공화국의 수도인 브라자빌(Brazaville)에는 1979년 프랑스의 여러 가르멜에서 연합해서 수녀원을 창립했다. 한편, 스페인 카스테욘의 알케리아스 가르멜(Alquerías)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문다소(Moundasso)에 가르멜을 창립했다. 1991년에는 콜롬비아의 가르멜 수녀 연합회에서 코트디부아르에 그랑바상 가르멜(Grand-Bassam)을 창립했다. 말라위 같은 경우 2003년 좀바 가르멜(Zomba)이 창립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르멜 수녀들의 진출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현재 그 대륙에는 전체적으로 19개국에 32개의 수녀원이 있다. 그중에서 31개는 「91년 회헌」을 따르고 있으며, 유일하게 세네갈의 세비토칸 가르멜만 「90년 회헌」을 따른다.

(다음 호에 계속)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24)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3. 합일의 기도와 탈혼 (계속)

성녀는 자신의 심리적인 기본 바탕(영혼 + 능력들 + 감각들 + 육체 + 기쁨)을 활용하는 가운데, 이 종교적인 체험을 신성의 신비스러운 주도권에 의해 영혼 안에 일어난 어떤 것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영혼의 능력들의 능동적인 활동 이상으로 제시하며 감각들이 거기에 온전히 순명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는 일종의 심리적인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하느님의 활동은 충만하게 의식적인 인간의 심리 상태나 지성적인 지혜의 내용 또는 사랑과 기쁨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래서 성녀는 여기서 기도하는 이가 이해하지만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영혼은 자신이 파악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이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14절). "분명히 의지는 사랑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상동). "여기서 영혼은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1절). "여기서는 온갖 능력이 온전히 멎어 있기에 그 활동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14절). "이렇게 기억이라는 저 귀찮은 작은 나비는 날개를 온통 태워 버려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상동).

이해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영역 또는 외적인 영역에 귀속된다: "모든 외적인 힘이 멎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힘은 커져서 자신의 영광을 보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느끼는 기쁨 역시 대단하고 익히 알려진 것입니다"(10절).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은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에워싸고 있는 광풍과 같다.

높은 긴장이 흐르는 이런 엄중한 순간에 탈혼(éxtasis)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성녀 데레사는 이에 대해 첫 번째 설명을 제공했으며, 좀 더 후에 이어지는 여러 장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여기서 성녀는 10절을 통해 탈혼에 대한 설명을 밀도 있게 제시했다. 사실, 그 자체만 보면, 이는 높은 영적인 긴장이 흐르는 순간에 성녀가 즉석에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좀 더 후에 성녀는 탈혼의 순간이 언제나 짧다고 지적한다: "모든 능력이 정지되는 것은 오래 계속된다 해도 아주 짧아서 30분이라도 계속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계속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12절). 그러나 이는 통상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아무런 상상력의 활동 없이 이루어지는 이 능력들의 완전한 정지는 - 제 생각엔 상상력도 온전히 멎었다고 봅니다 - 짧은 시간 동안밖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능력들은 그처럼 또렷하게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으며 그러는 동안 하느님은 때때로 그 능력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가십니다"(13절).

'신적인 환자'(*patiens divina*), 이는 신비가를 일컫는 고전적인 정의이다. 성녀 데레사가 이런 능동적인 수동성의 삶을 처음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삶의 형태, 통상적인 기능적 역동성 이상으로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다. 성녀는 이와 병행하는 『영혼의 성』(5궁 1, 9)의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했다:

> "하느님은 그런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정신이 들어온 뒤에도, 자기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제19장

합일의 상태에서 신비가는 어떠한가
자신의 역사에 대한 상기
숨어서 신비가를 기다리고 있는 유혹들

언제나 마찬가지로, 본 장의 제목은 강독을 위한 상대적인 안내 지침을 제공한다. 즉, 성녀는 네 번째 기도 단계에서 다뤘던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이 기도 단계가 영혼 안에 일으키는 효과들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변화이다.

성녀는 이미 이 점을 바로 앞장(자 18, 6)에서 설명하려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내용이 성녀를 덮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성녀는 글을 쓰는 가운데 이 기도의 행복감 속에 잠겨 있었다: "하느님께서 저를 높여 주신 이 상태를 생각하면, 제가 이야기의 줄거리를 잃어버리고 할 말을 모르게 되어 버리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9절).

사실, 성녀는 탈혼의 '효과들'이라는 주제를 조금이나마 다루다가 "이야기의 맥락을 잃어버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갔다가 손에 펜을 잡으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하느님의 찬미 안에 고스란히 사라져 버립니다"(2절). 이처럼 성녀는 기도하고 글을 쓰는 두 가지 과제를 하나로 결합했다.

여기서부터 성녀는 과거를 상기하기 시작했다. 즉, 지난 과거 동안 자신이 범한 잘못과 일탈, 거짓 겸손, 배은망덕에 대해 기억했다("이런 일들을 적어 나가면서 내 가슴이 왜 으스러지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5절];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전혀 모를 지경입니다"[9절]). 그리고 이런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본서의 첫 번째 독자, 그리고 가능한 독자 그룹(성녀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유혹과 퇴보에 대항해 이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과 대화를 시작했다.

따라서 본 장의 논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제시된다. 우선, 성녀는 아주 간단한 가르침을 제시한 다음,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고, 이어서 독자들에게 조언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속삭임과 다정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장의 스케마는 다음과 같다:

- 1~3절: 삶에서 신비 기도의 효과들, 하느님의 체험에 의해 변모된 그리스도인의 전기
- 4~15절: 퇴행의 두 가지 위험: 하느님에 대한 불충실(죄), 그리고 기도의 포기(퇴보). 성녀는 우선 하느님과 자신의 역사를 대면하는 가운데(5~12절), 다음으로 독자에게 자신의 확신과 경험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11~15절) 이를 제시했다.

1. 변화

더할 나위 없이 기도는 기도하는 당사자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영혼은 이 기도와 합일에서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애정과 함께 머물게 되므로 (…)"(1절). 성녀

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 기도가 일으키는 효과를,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사는 성녀 자신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습이 간직한 보다 강한 윤곽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해설을 시작하기로 하자(1~3절). 성녀 데레사는 이 기도에 도달한 신비가에게서 세 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강조했다: 1) 감수성, 2) 새로운 도덕적 힘, 3)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활동.

1) 감수성: 이는 첫 번째 특징으로, 성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상당히 강조했다: 성녀를 사로잡는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애정"(1절).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다: "영혼은 이 기도와 합일에서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애정과 함께 머물게 되므로, 괴로움 때문이 아닌 환희의 눈물로 자신을 사르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흘렸는지도 모르는 새에 온통 눈물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물이 자기를 태워 버리는 세찬 불을 가라앉히고, 또한 그것을 더 크고 많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상동). 불과 물, 성녀는 작품에서 이 둘을 강조했다. 기도에 대한 성녀의 설명에서 이 둘은 더는 대립하지 않는다. 특히, 눈물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상징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녀는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

2) 그러나 눈물이 사람의 힘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느님을 위해서 산산조각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 영혼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느낄 겁니다. 이때야말로 영혼은 갖은 약속을 하고 영웅적인 진심을 세우며 뜨거운 소망을 일으킬 때입니다"(2절). 성녀는 이 모든 것을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윤리적인 틀에서 넘쳐 나와 존재론적인 차원에 이르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겸손은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나간 삶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존재이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혼은 오직 하느님과 머물 뿐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2절). 종합하면, 성녀는 여기서 용기, 겸손, 사랑을 제시했다.

3) 마지막으로, 삶에 새로운 것이 개입되어 들어간다. 신비가가 현세 사물들을 업신여기고, 즉시 그것들한테서 멀리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는 세속을 혐오하며 그 덧없음을 아주 분명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다른 기도 단계에서보다 이 기도에서 훨씬 더 많고 월등히 뛰어난 유익을 끌어냅니다"(상동).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새로운 태도를 갖기 시작한다: "영혼은 그것이 제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는 자신이 가난하게 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벌써 천상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이 용어의 빈도수에 주목하라). 그는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소망에 불타서, 자기만 그렇게 풍요롭게 채워주시지 말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조금도 모르는 가운데, 또한 스스로는 그런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도 모른 채, 이웃에게 영적인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3절). 이는 이해할 만하다.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녀 데레사는 이미 새로운 성 요셉 가르멜을 창립한 상태였다. 성녀는 자신이 함께하는 친밀한 '다섯 명의 벗'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이 주목한 바 있다: "아무도 그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록 그분이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도, 그분을 신심으로 움직이

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거대한 거둠의 집에는 40명 이상의 수녀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 하느님은 그분에게 힘차고 용기 있는 영혼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종종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악마를 짓밟습니다. 그분은 전혀 아양을 떨지도 않았고 유치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세심하고 아주 올바른 분이셨습니다"(BMC 2, 131-132). 그러나 성녀는 무엇보다도 본 장에서 훨씬 더 강하게 자신을 봉헌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 성녀 데레사: 합일의 기도에서부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장은 다시금 기도하고 글을 쓰는 성녀 데레사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소임을 하는 데 있어 열정적이면서도 애정 가득한 태도로 임하는 성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심지어 본 장은 눈물을 흘리는 성녀의 모습도 보여준다. 물론, 성녀가 이를 독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성녀는 하느님에게 이를 말하고 있다: "이런 눈물이 제게서 나오는 한, 참으로 더럽혀진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6절). 또한, 그보다 조금 전에 성녀는 감동에 젖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일들을 적어 나가면서 내 가슴이 왜 으스러지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5절).

더 나아가, 우리는 본문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5번(2절, 5절, 6절, 7절, 9절) 끊기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기도에 휴식을 섞어 넣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 자체는 성녀가 합일이라는 망루(望樓)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연장해서 뒤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녀는 이 글을 1565년에 쓰고 있었으며, 아픈 가운데 40대의 회색빛 나날들을 살고 있었다: "그때부터 벌써 2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11절). 성녀는 기도를 포기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척 고민한 나머지 일 년 반, 아니 적어도 일 년 동안 이 수업을 그쳐 버렸습니다"(4절). 당시 성녀가 기도를 포기한 것은 무기력과 거짓 겸손 때문이었다. 성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았으며 이제 눈물짓고 있다. 성녀는 신비적인 생활에 들어간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시기를 잘못 이해했다.

이러한 기도의 맥락에서 성녀는 자신이 겪은 두 가지 유혹을 회상했다. 하나는 거짓 겸손의 유혹으로,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하면서 1년 반 동안 개인적인 기도를 포기하게 했다: "다른 수녀들처럼 해야 하는 것만 기도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10절). 그리고 좀 더 훗날, 성녀는 수많은 신비적인 보화들을 받은 다음에는 "왜 나에게 그런 게 주어졌지?"라는 전형적인 유혹을 갖게 된다. 특히, 성녀는 다른 수녀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자신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의아해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비적인 선물들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에게만 풍성히 내려 주셨는지 의문을 가졌다. 심지어 성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기도 했다. 언제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시간경을 바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시편 118의 구절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규는 바릅니다." "이다지도 적당치 못한 제게 베푸시는 법열이나 은총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충실한 당신의 여종인 대다수의 수녀들에게 정의로써 거절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하며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런 것은 괘념치 말고 나만 섬겨라." 이때가 당신께서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9절).

(다음 호에 계속)

나는 하느님 뵙기를 원합니다 (15)

마리 에우젠 신부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제5장: 침묵

A. 침묵의 필요성(계속)

요란스러운 감각적 능력들은 외부에서 유지되므로, 영혼은 그 영역에서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빛이 그 능력들 위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분께 청원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소통이 그 접촉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내적 능력들이 자신의 침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내 사랑아 몸을 숨겨 다오,
> 얼굴을 들어 산을 보라,
> 그렇게 말하지 말고,
> 단지 동료들을 바라보라
> 기묘한 섬을 통하여 가는 데서.[1)]

신비 박사는 영혼이 하느님과 하게 되는 만남의 순수함을 열렬히 지켜내기 위해, 이런 연들을 통해 고요한 심연을 향한 영혼의 움직임을 묘사했다. 침묵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모든 신비가들 사이에 드러난다. 만일 누군가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하느님과 접촉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모든 스승들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어떤 이는 자신의 독특한 상징어로 그에 대해 언급했다.

성녀 데레사는 연속되는 7개의 궁방들을 구별했다. 성녀에게 있어 깊은 합일은 가장 내밀한 제7궁방에서 이루어졌다. 타울러는 우리가 이 근본적인 갈망에 주목하도록 했다. 이는 여타 활동적인 기관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다. 뤼스브뢰크(Joannes Ruysbroeck)와 폴리뇨의 성녀 안젤라(Angela da Foligno)는 높음과 깊음이라는 두 가지 심연(深淵)에 대해 말했다. 이 둘은 서로를 발생시킨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이 높음도 낮음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다음,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는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le centre le plus profond de l'âme*)'에 대해 말한다. 그곳은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그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다.[2)]

성인전은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에서 체험한 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침묵과 관련된 순수한 체험과 그에 대한 깊은 요청을 드러내 주는지 모르겠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세벨 여왕의 분노를 피해 천사가 준 빵으로 연명한 채 광야에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곳은 최고의 하느님의 산으로 야훼께서는 그 위에서 모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

1) 노래A 32연.

2) 참조. 불꽃 1, 9-14.

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3)

이는 모세가 증인이었던 시나이산의 신현(神顯)으로, 이는 같은 산 위에서 엘리야의 면전에서 반복되고 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하늘과 예언자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그러하다. 엘리야는 놀라지 않았다. 하느님은 당신이 곧 지나가실 거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요란하고 외적인 방문들만으로는 외적이고 예민한 형태를 덧입은 감각들을 뒤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깊은 신성(神性)에 대해 열망하는 정화된 그의 영혼에 충분하지 못했다. 엘리야가 갈망하고 고대하는 주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이나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는 군대들의 하느님을 잘 상징화했으며 불꽃처럼 일어난 이 예언자가 받은 은총도 제대로 상징화했다. 그분의 말씀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가벼운 산들바람이 일었다. 종종 폭력적이기까지 한 험상궂은 외적인 상황에 있던 엘리야 예언자는 이렇듯 들어 높여지고 예민해진 영혼의 상태에서, 예리하고 정화된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거둬들이기 위해 망토 아래 얼굴을 숨겼다. 그가 가졌던 기대는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하느님은 지나가셨고, 그분은 그가 갈망했던 것처럼 위대하고 순수하게 당신을 드러내셨다.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감지(感知)를 설명하고 그 본성을 이해하려면 신성(神性)의 전문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청각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드러내신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하고, (영적으로) 매우 높은 차원의 것이다. 성 바오로는 자기가 받은 계시의 높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도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2코린 12,4)고 했지 무엇을 보았다거나 즐겼다고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들었으나 인간이 그것을 발설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우리의 사부 엘리야처럼 휘파람(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서 하느님을 뵈었다고 여겨진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로마 10,17) 신앙이 육체적인 청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 닿듯이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바로 이해된 실체인데, 영적인 청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 닿는다.4)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모든 예언적인 체험을 무한히 넘어서는 데 두어야 한다. 그분에게서 인성(人性)은 신성(神性)과 위격적으로 일치해 있으며 지복직관을 통해 이 일치를 향유한다. 어떻게 그분이 자신 안에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데 사로잡히고 그 도유(塗油)의 파도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는 침묵 속으로 피신하려는 지속적인 필요를 경험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분은 나자렛에서 근 30년 동안 은거하고, 지속적으로 침묵을 보존하기 위해 공생활 전에 근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며, 이를 쇄신하기 위해 종종 밤의 고요함 중에 고독으로 되돌아가셨다. 이 모든 것은 그러한 근본적인 필요를 통해, 그분이 살고 자신을 내어준 여러 지역에서 그분을 끌어당긴 하느님의 무게를 통해, 그분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빛이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을 통해 훨씬 더 잘 설명된다.

이미 하느님을 발견한 성녀 데레사는 그

3) 1열왕 19,11-13.

4) 노래A 13-14, 15.

분에 대한 갈증을 느꼈으며 이와 동시에 침묵에 대해 열망했다. 성녀의 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인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창립은 이러한 필요에서 생겨났다. 강생 수녀원에 부족한 봉쇄와 상당히 많은 수녀들 그리고 완화된 규칙은 침묵을 말살했다. 성녀 데레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만의 내밀함을 가꾸고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성녀 데레사는 단지 가르멜의 초기 이상을 다시 발견하고 그 규칙을 완전하게 준수하기 위해 근 30년 동안 살았던 그 수녀원을 떠났다. 가르멜은 광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를 간직하고 있다. 성녀 데레사는 거룩한 산에 살았던 은수자 부족(部族)에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예루살렘의 총대주교인 성 알베르토는 이 부족과 관련해서 침묵에 바탕을 둔 규칙서에 수도승적인 삶을 성문화(成文化)했다.

성녀 데레사는 이런 초기의 이상을 부흥하기 위해 광야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성녀는 이를 도시의 중심에 배치했다. 이것이 바로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을 조직화함에 있어 지배적이던 지도적인 이상이었다. 이 수녀원의 창립은 성녀의 실천적인 천부적 재능이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이 수녀원은 가난하며, 그럼으로써 방문객들을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과는 즐겨 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수녀원에서 봉쇄는 엄격했다. 여기서는 수녀들이 함께 노동하지 않고 각각의 수녀들이 자신의 수방에서 노동한다. 수녀원의 울타리는 높고 거기에 여러 은둔소를 만들었는데, 여러 경우에 거기서 상당한 고독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수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 곁에서 침묵 중에 쉬러 오시는 신적 내밀함이 깃든 천국이다. 성녀는 여행 중에 그와 똑같은 주의를 침묵에 기울였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딸 수녀들을 위한 주위 환경이 신성하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B. 침묵의 형태

침묵에는 자연적 활동에 대한 침묵과 언어의 침묵이 있으며 영혼의 내적 능력들의 침묵도 있다. 각각의 침묵의 형태는 고유한 규칙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분리해서 연구해야 할 만큼 특징적이다.

I. 언어의 침묵

현행 언어에서 침묵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침묵의 실천을 위한 혀의 금욕이 지닌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혀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것과 몹시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보화의 원천인 혀가 가장 중대한 악들을 촉발하기도 한다. 성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이 점을 힘주어 말했다:

>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

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야고 3,2-9).

이 연설은 강력하고 완전하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혀로 짓는 죄의 중함에 대한 강조는 분명 여기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한 단계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은 이 점이 치유됐거나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혀에 대한 금욕이 지닌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하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직접 연관된다.

말은 영혼에게 있어 좀 더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 그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 이를 표현하는 가운데 밖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소통은 주는 이와 받는 이에게 있어 유익할 수 있다. 첫째, 선사 되고 싹이 트는 사랑은 힘과 기쁨을 발견한다. 둘째, 이러한 소통은 사랑이 부어지는 가운데 전해지는 모든 것과 빛의 풍부함을 전해준다.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환은 사회생활, 모든 교육, 신앙의 발전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진보에 바탕이 된다. 사도 성 바오로는 믿음이 들음으로써 오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설교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이 과하면 해롭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분수를 지키려면 언어의 금욕이 있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영혼의 깊은 부분을 보여준다. 단 한 순간에 심오함은 사라질 수 있으며 희미한 빛과 침묵도 흩어질 수 있다. 영혼의 깊은 곳에 당신의 집을 갖고 계시며 이 희미한 불빛과 침묵 속에 신적 생명의 창조적 활동을 배치하신 우리 하느님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 때문에 피로하신 것 같다.

이처럼 바깥에서 오는 소통은 종종 영혼의 침묵과 하느님의 활동을 방해하며 이를 흐트러트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비롯해 유혹이 되는 화제들을 가져온다. 한 마디로, 이는 내적 거듭을 방해하는 어려움을 크게 만들고 하느님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위험하게 만드는 근심의 원인들을 초래한다.

영혼은 대화와 불편함에서 기인한 해악으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오랫동안 슬펐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상했던 동정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미소의 비밀이 달아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누가 가장 내밀한 기도나 친교의 만남에서 나오는 향기가 쓸데없는 잡담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이런 특별한 경험은 비록 감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와 비슷한 여러 경우에 자주 있는 해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처럼, 영혼의 모든 보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밖으로 드러내는 성향인 잡담은 영성 생활에 상당히 해롭다. 그 움직임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언제나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영성 생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필요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 수다쟁이는 하느님과 모든 심오한 활동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모든 내적 생활은 입술을 거치며 말의 파도 속에 흩어지고 만다. 이로 인해 그의 생각과 영혼의 결실은 언제나 더욱 궁핍한 열매만 맺게 될 뿐이다. 사실, 수다쟁이는 자신을 거둬들이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며 깊이 살아갈 시간도 없다. 아니 그에게는 그럴 취향도 없다. 그는 자신 주위로 벌어지는 동요(動搖)와 함께 다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활동과 자신을 거둬들이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그는 피상적이고 경박하다. 한 마디로, 수다쟁이는 위험한 존재이다.

(다음 호에 계속)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1)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재속 가르멜회

제 6 궁방

제8장

하느님께서는 지적 현시를 통하여 어떻게 (영혼과) 사귀시는가

1. (1항) 데레사는 이 장에 대한 그녀의 목적을 말한다. 그녀는 영혼이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다양한 친교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걷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주의를 끄시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지적 현시라고 부르고, 제6궁방의 이어지는 장들에서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한다.

2. (2-5항) 데레사는 그 영혼이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계심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영혼은 육체나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녀가 말하기로, 이러한 경험은 지적 현시라고 한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말한다. 그녀는 그러한 현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름으로써 일어났던 경험들에 대한 이전의 자신의 걱정들을 나눈다.

지적 현시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거나 어떤 진리가 영혼에게 전해졌지만, 완전히 숨겨졌거나 신비로운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영혼이 알게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함도 없이 영혼은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거나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해 사제와 그러한 경험을 나누려는 노력은 회의론이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시의 힘은 너무나도 커서 사람은 그것을 의심할 수도 없다.

데레사는 지적 현시에 대하여, 특히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는 문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한다. 이 장의 4번에서, 데레사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가상의) 인물-사실은 그녀 자신이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면서, 지적 현시들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그녀가 설명한 것이 믿을만하다고 강조한다.

데레사는 이러한 현시들이 강한 혼란과 겸손을 낳고, 그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주님의 현존은 영혼 안에 커다란 사랑, 모든 잘못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조심성, 그리고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더 커다란 소망을 낳는다.

그녀는 이러한 현시는 영혼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하면서(5항)

결론을 맺는다. 그녀는 당신께서 영혼에게는 공덕이 없는데도 이러한 현시를 주심에 대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 영혼은 그 현시를 지상의 어떠한 보물이나 기쁨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그 현시를 걷어 가실 때, 그 영혼은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데레사는 말한다. 데레사는 영혼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러한 사귐을 가져올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때때로 그 현시가 성인들에 관한 것일 때도 있는데, 그것 역시 유익하다고 덧붙인다.

3. (6-7항) 데레사는 어떻게 그 영혼이 주님이나 성인들의 현존을 알아차리면서 그 신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 그녀는 이러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지고의 장엄하심을 이해하는 문제에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저열한지 알게 된다고 결론을 맺는다. 데레사는 이러한 유형의 현시를 통해서 커다란 유익함이 영혼에게 오며,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며 그 영혼의 생각은 당신께 전념하게 된다고 말한다.

4. (8-9항) 여기에서 데레사는 지적 현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련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한다. 이상적인 상황은 이러한 현시들을 경험했던 매우 학식이 있고 매우 영적인 고해사제와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해사제와 접촉할 수 없다면 이러한 특성(학식이나 영성) 중 하나라도 갖춘 사람을 한 명 이상 찾아서 그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데레사는 충고한다. 9번에서 그녀는 학식이 있는 사람-가능하다면 영성도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만족했다면 그 다음에는 침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널리 퍼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8번과 9번에서 우리는 데레사의 가르침에 긴장(갈등) 상태가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 그녀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듯이 주님의 현존에 대한 지적 현시를 경험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 경험이 일반적인 경험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녀는 처음에는 그러한 현시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조언해 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데레사는 주님의 현존과 늘상 동반되는 하느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떠한 것에서도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조심성 등으로 인한 커다란 확신 덕분에 지적 현시들은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고 은근한 방법으로 말한다. 영적이면서 학식이 있는 고해사제를 찾으라고 분명하게 충고하면서, 그녀는 이러한 유형의 현시에 대하여-고해사제가 그것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의심하거나 두려워하라고 충고하지는 않는다. 이전 궁방에서 데레사는 악마나 자신의 상상에 의해 속을 기회가 매우 많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다.

5. (10항) 데레사는 자주 무시되는 점으로 결론을 맺는다. 가장 위대한 성인만이 지적 현시들을 경험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데레사는 수녀들 중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약한 사람을 이러한 길로 이끄신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나약함이나 뚜렷한 거룩함을 보는 것은 그 현시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 현시가 하느님께 기원을 둔다는 영혼의 커다란 확신과 함께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당신께 봉사하려는 소망, 그리고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설명

1. 여기에서 하느님께서는-데레사의 신비적 경험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러했듯이-처음에는 그녀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전해 주신다. 당신께서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그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녀는 그녀가 고해를 했던 고해사제들 중 몇 명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들에 대한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하느님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고, 고해사제로부터 (하느님의) 말소리나 황홀경을 포함한 이러한 것은 의혹스럽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위험하며 하느님께 그녀를 다른, 더 안전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순명하고 하느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빌었음에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러한 은혜가 그녀에게 주는 좋은 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그녀 안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의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데레사는 이러한 은혜에 관해서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아야 하며, 당신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당신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2. 데레사는 「자서전」(제22장)에서 개인의 전기적傳記的인 면에 대한, 그리고 「성」 제3궁방에서 교의적, 신학적인 면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감탄스러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성」 6, 7, 9)을 확신했다. 인성과 신성은 결합되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성은 육체적,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지에 찬성하는 데레사의 많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논의, 그녀가 실제로 겪었던 논의에 관심을 가진다. 그녀의 신비적 경험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하느님이자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 「자서전」에서 데레사는 육신에 반대했던 영성가들에게 대응하는 논의를 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27장) 기꺼이 말한다. 이제 「영혼의 성」 제6궁방의 7-장의 교의적인 면은 일종의 그리스도론적 성화상聖畵像을 형성한다. 첫째, 그녀는 하느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단계는 물론 높은 단계에서도 모든 신적 은총의 중개자(제7장)이시라는 교의에 찬성한다. 둘째, 그녀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과의 합일로 이끌어주는 신비적 경험의 과정을 따르면서,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지적 현시라고 부른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자매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며, 영혼이 더욱 나아갈수록 좋으신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 걷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성」 6, 8, 1).

4. 데레사가 이러한 현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육체의 눈으로나 영의 눈(내적 감각 기관)으로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우리가 언급한 대로, 데레사는 정체성을 감추기 위하여 「영혼의 성」에서 그녀의 경험을 제3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녀는 이러한 은총을 「자서전」에서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제 옆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적 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서 항상 제 오른쪽에 계셨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셨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마음을 거두어도, 혹 크게 헤매지 않으면, 저는 당신께서 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자서전」 27, 2). 또 「자서전」의 같은 장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현시는 태양보다 더 밝게 영혼에게 주어진 지식을 통하여 보입니다. 나는 태양이나 밝은 빛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을 보지 않고도 한 줄기 빛이 지성을 비추어, 영혼이 그렇게나 좋은 것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수반합니다"(「자서전」 27, 3).

5.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언자가 야훼 하느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체험의 결과로 나온다. 불타는 덤불에서 하느님의 현현을 만난 후에 시나이 지역의 목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의 예언자이며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던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 체험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데레사의 경우에,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체험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다.

6.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현시라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는 데레사의 영성 생활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뉜 1560년에 일어났다. 이날 이전에 데레사는 그녀가 모든 일련의 신비적 은총들을 받은 완전한 회심의 시점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 안에서의 그녀의 소명이어야 하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 아직 예언자적인 것도 박사적인 것도 창립자적인 것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작품들은 1560년 이후에 등장한다. 첫 번째 작품은 1560년의 「영적 보고」였고 마지막 작품은 「창립사」였다. 1560년의 이런 특별한 사실 이후에야 그녀는 언제나 더욱 완전한 것을 행하겠다는 서원을 하기로 결심했다. (맨발) 가르멜 수녀원에 대한 모든 창립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이런 개인적 만남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에야 그녀는 수도명을 아후마다의 데레사에서 예수의 데레사로 바꾸었다. "요컨대, 영혼이 얻는 것에 관해서라면, 이 현시는 가장 뛰어나고 높은 가치가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전혀 받을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당신께서 이러한 현시를 주심에 감사드리게 되고, 그러한 축복을 지상의 어떠한 보물이나 기쁨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성」 6, 8, 5).

논의를 위한 질문

1. 데레사는 이러한 지적 현시에서 무엇을 이해하였는가?
2. 데레사가 이러한 경험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이러한 현시의 좋은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 호에 계속)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17)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재속 가르멜회

고통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 찾기

요한은 톨레도 감옥에서 겪은 그의 고통을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두움이자 사랑의 변화로 이끌어주는 행복한 밤으로 보았다. 변화적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 요한은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고통과 믿음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적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사랑과 연결된 고통의 구원적 가치를 믿었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위한 고통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다. 요한은 자신을 위한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매우 유쾌한 성격을 지녔고 인생과 사람들을 즐겼고 전원 풍경을 사랑했고 우정을 반겼다고 단언한다. 요한은 또한 금욕 수련을 신중하게 했고 "힘들게 비범한 고행과 다른 많은 의지적인 수련을 하는"(『산길』 1,8,4)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추구했고(그에게는 todo),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어떠한 것이라도 기꺼이 했다(그에게는 언제나 nada).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유익함이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기쁨을 두며 모든 것에서 기쁨을 정화하는 데에 힘을 쓰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산길』 3,30,5). 그러므로 강한 사랑은 부정否定과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삶에 대한 요한의 통찰력의 기초적인 기둥이다. "대단히 순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합일에 다다를 수가 없으며, 이러한 순결함은 창조된 모든 것을 벗고 강렬하게 끊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밤』 2,24,4).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요한에게는 부정, 정화, 비움과 벗음이다.-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일어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과 거짓 애착들의 정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결과인데, 이것은 능동적 밤들의 일이고, 우리는 요한의 가르멜 산 그림과 『산길』의 상세한 설명들에서 이러한 양상들에 대한 그의 많은 권고를 발견한다. "어느 영혼이 고통을 겪기 위하여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없이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참을성을 가지면, 그것이 덕에서 더 많이 나아간다는 징표이다"(『금언』 119). 어디에서든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직면하는 것이 이러한 참여의 일종이다. 질병, 존엄성과 사랑의 상실, 고용 문제들, 자연재해의 결과들, 전쟁의 악폐, 불의, 소외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싸우고 그러한 것을 완화시키려는 영혼의 노력들이 이러한 능동적 정화에 포함된다. "세상의 역경으로 느닷없이 슬퍼하지 않아야 함을 알아라. 그대는 그 역경과 함께 오는, 뽑힌 이들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한 하느님의 심판 안에 정해진 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금언』 63). 고통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의 결과일 때, 각각의 영혼들은 그것에 직면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결코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랑과 봉사로 응답해야만 한다.

두 번째 양상은 수동적인 밤들에 영혼에게 가해진 고통, 때때로 너무나 강해서 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고통(『산길』 서문,1)을 받아들임의 결과이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목적은,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만을 위하여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이러한 정화적 방법을 통하여 주시기 시작하는 이런 하느님 사랑의 강한 합일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밤』 2,11,3). 고통의 가치는 "이런 사랑의 강한 합일"에서 오고, 요한은 항상 그러한 합일의 추구에 초점을 맞춘다. 고통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합일하는 사랑의 힘을 얻도록"(『밤』 2,11,3) 정화하고 준비시킨다.

요한은 영혼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통의 일부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의 모든 즐거움에 비하면 지극한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쓰라림이다"(『산길』 1,4,7). 그러므로 어떤 고통은 아직 이루지 못한 합일(『노래』 6,2)에 대한 마음의 갈망-"참을 수 없는 사랑"(『불꽃』 3,18)-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른 고통은 합일을 갈망하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을 사랑할 때 고통을 주십니다"(『편지』 11). 이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당신의 죽으심을 모방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굳게 인내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만족하며 살 것이다"(『금언』 86).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고통을 받아들이고(『편지』 25. 또한 『산길』 2,7,6-7),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노래』 2,5) 하느님을 사랑하도록(『산길』 2,26,10) 불림을 받았다. "시련의 시기에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즉시 하느님께 가라. 그러면 그대는 힘을 얻고 조명을 받고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금언』 65). 사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려는 우리의 갈망은 "하느님을 위한 고통과 상응한다"(『노래』 12,9). 사랑의 사다리의 네 번째 단계를 설명하면서 요한은 "영혼은 사랑하는 넘 때문에 일상적으로 괴로움을 겪지만 지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영혼은 그렇게나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당신을 따른다."(『밤』 2,19,4)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사랑을 위한 것이고,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을 때, "그러한 것들이 고통스러운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편지』 17).

사랑의 합일의 길에서 당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합일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시키는 하느님 선물의 일부분이다. 관상의 조명은 자기 자신의 결함을 봄으로써 비롯되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이전의 기도 형태와 종교적 만족을 잃어버릴 때, 그 영혼은 메마름과 비움의 고통을 느낀다. 하느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면, 그 영혼은 과거의 좋았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원통해 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면, 그 영혼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굳은 땅 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과거의 안전함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 모든 고통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의 일부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이렇게 저급한 사랑의 방법으로부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더 높은 단계로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밤』 1,8,3). 메마름과 무미건조로부터 오는 고통 외에, 또한 하느님 부재의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다. "하느님의 부재로 인한 이러한 고통과 느낌이 완덕의 상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다"(『노래』 1,22. 2,5).

고통은 사랑의 합일에 필요한 정화의 부산물이다. "하느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더 강하고 빨리

정화시키신다"(『밤』 1,14,5). "하느님께서 부어 주시는 관상이 고통을 주는 원인이 아니라"(『밤』 2,9,11), 오히려 그러한 고통은 영혼이 지니고 있던 나약함과 불완전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밤』 2,10,4). "이러한 불완전함은 불태우는 연료인데, 그러한 연료가 다 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불완전함이 끝나 버리면 영혼의 고통도 끝나고 즐거움만 남는다"(『밤』 2,10,5).

그러므로 영혼은 고통을 넘어서,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자신의 진정한 부르심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고통 안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고통을 신뢰해야만 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갈망했지만 기대조차 하지도 못했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랑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봄

요한이 『산길』과 『밤』에서는 믿음의 여정을,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에서는 사랑의 여정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두운 밤』의 목적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완전한 합일에 이르기 위한 여정에서" 영혼이 지녀야 할 태도(『밤』 제목)를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영혼은 "간절한 마음으로 님을 바라는 사랑이 불타오를" 때 이러한 여정을 수행할 뿐이고, "마음속 타오른 것 외엔 빛도 길잡이도 없이" 여정을 나서고, 그 여정의 종착지에서는 "그 사랑만이"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올라가도록 만든다(『밤』 2,25,4). 『어두운 밤』은 강한 사랑의 여정(『밤』 2,11,3. 『노래』 31,4)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의 접근법은 "다른 할 일도 없고 사랑만이 내 일"(『노래』 28노래)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다른 모든 신념은 "저녁 때 그대는 사랑으로 시험받을 것이다."(『금언』 59)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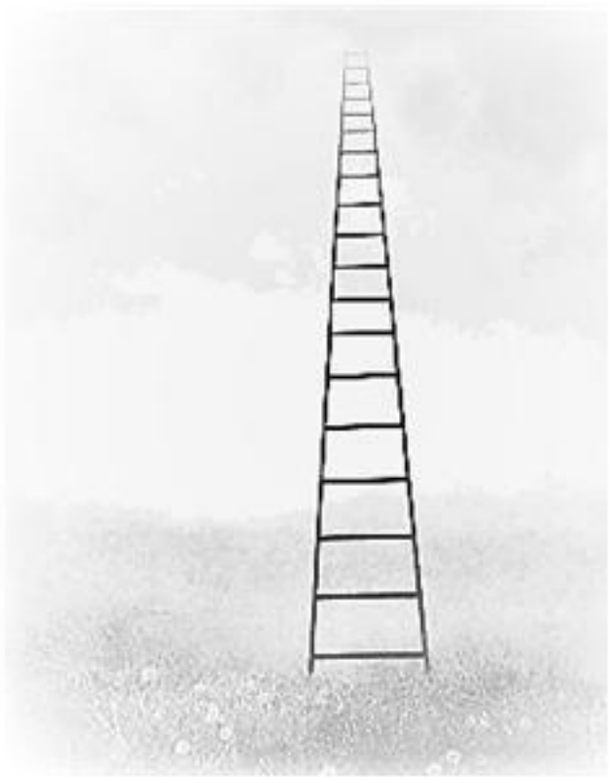
사랑의 중요한 변화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감미롭고도 흐뭇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과 모든 것에서"(『밤』 1,해설,1) 떠나는 수동적인 밤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영혼을 끌어당기시고 앞으로 이끄시고 해방시키시고, 영혼으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시는(『밤』 1,8,3)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랑의 영 안에서 영혼을 불태우는 것으로써, 하느님께서 은밀하고 평화롭고 사랑겹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인"(『밤』 1,10,6) 관상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사랑의 렌즈로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통찰력에 고무되어 "아, 가장 달콤한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는가? 당신의 광맥을 찾는 사람은 쉬게 될 것이다."(『금언』 16)라고 말한다.

요한은 인간의 사랑이란 수천 가지의 애정과 바람으로 나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랑의 결합을 완성하고 완전히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어두운 밤의 엄숙한 시험은 사랑의 합일 안에서 사람의 모든 힘을 결합시키도록 이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수덕을 열 계단의 사다리로 묘사했다. 이 사다리는 "사랑의 학문"의 열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입시켜 주신 사랑스러운 지견으로서, 그 지견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올라갈 때까지 매 단계마다 영혼을 비추는 동시에 사랑으로 불태운다. 영혼을 하느님과 합일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다"(『밤』 2,18,5).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불만족스러운 느낌과 병을 있는

그대로 주실 때이다.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결점에 대한 인식 때문이지만, 그것은 또한 변화된 삶에 대한 갈망 때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전하여 영혼이 하느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의 결과이며, 그 영혼은 이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느님만 찾는다. 게다가 이때는 또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하느님에 대한 그 어떠한 심상도 제쳐놓고 사랑 속에서 참된 하느님을 찾는다. 세 번째 단계는 영혼이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선물로 드리는 것의 일부분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응답이 부적절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을 가지며 일을 한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영혼은 자신의 결점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되지만, 하느님 사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기를 바란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랑의 중요한 발전이다. 영혼은 이제 그 길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느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그 영혼은 이제 자기조절에 헌신하고 사랑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한다. 사랑의 사다리의 다섯 번째 단계는 영혼이 초조하게 하느님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 영혼의 모든 힘은 이제 하느님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때때로 그 소망이 좌절되면 조바심이 난다. 이 모든 단계들은 영혼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의 결과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영혼의 희망은 그를 기운 나게 해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 많은 정화와 사랑을 하도록 하는 여섯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 요한은 일곱 번째 단계를 열정적인 대담함으로 묘사하는데, 그때 영혼은 삶을 온전히 하느님 사랑에 집중한다.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느님께 미지근하게 응답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대담하게 응답할 용기를 받는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대담하고 힘차게 신적 사랑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 여덟 번째 단계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하느님과 사랑의 합일을 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간헐적이고 실제적 합일 속에서 각각의 영혼은 이제 손을 뻗쳐서 하느님을 잡을 수 있고 사랑의 주입으로 하느님께 다가간다고 느낀다. 아홉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만족하는 시기이며, 그 영혼은 이것이 그가 바라던 것-일상적 합일-이라고 느낀다. 마지막 단계는 영혼이 저 세상에서 하느님과 합일하는 것인데, 그때 그는 하느님 사랑에 완전히 정화되고 변화된다.

(다음 호에 계속)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시와 해설

인 내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아무 것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아무 것도 너 겁내지 마라
다 지나가느니라.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인내함으로써 모든 걸 얻으리라.

하느님을 차지하는 이,
아무 것도 아쉽지 않고
하느님만으로 흡족하리라.

2.

마음을 드높여,
하늘을 우러르면
아무 것도 너를 슬프게 못하리니
아무 것에도 너 떨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커다란 품으로 오너라.
그에게 오면 아무 것도
너를 놀라게 못하리라.

너 세상의 영광을 보느냐?
그건 덧없는 영광이라,
아무 것도 든든한 게 없어
다 지나가느니라.

3.

충실함과 가멸짐이
영원히 계속된다 약속하는
하늘스런 그걸 갈망하라.
하느님은 변하심이 없느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
끝없이 좋은 상급을 받으리라.
그러나 인내 없이
순수한 사랑은 없느니라.

신앙과 신뢰를
영혼에 간직하고,
믿고 바라며 사는 이
모든 것을 얻으리라.

4.

지옥 같은 시련을
당하겠지만,
하느님을 차지하는 이들은
그들의 분노에 조롱하리라.

고난과 불행으로
무시당한다 해도,
하느님이 그의 寶庫(보고)라서
아무것도 아쉽지 않으리라.

가거라, 세상의 좋은 것들아!
가거라, 덧없는 행복아!
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느님만으로 흐뭇하리라.

해 설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지은 30여 편의 시 중에서 맨 먼저 소개하는 <인내>라는 제목의 이 시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작곡까지 하여 교회에 퍼져 성가처럼 부를 정도로 많은 가르멜인들이 적어도 1절 정도는 외우거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원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비슷하면서도 번역하는 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리 길지도 않은 시의 1절의 원문과 그 원어(castellano) 발음과 각 단어의 우리말의 뜻을 소개하려 한다.

Nada te turbe, 나다 떼 뚜르베
아무 것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nada te espante, 나다 떼 에스빤떼
아무 것도 너 겁내지 마라,

todo se pasa, 또도 쎄 빠사
다 지나가느니라,

Dios no se muda, 디오스 노 쎄 무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la paciencia 라 빠시엔시아
참아 견딤으로써

todo lo alcanza. 또도 -르로 알깐사
모든 것을 다 얻으리라.

Quien a Dios tiene 끼엔 아 디오스 띠에네
하느님을 모시는 이

nada le falta. 나다 -르레 팔따
아무 것도 아쉽지 않고

Solo Dios basta. 쏠로 디오스 바스따.
하느님만으로 흡족하리라.

단어 풀이

* nada: 아무 것도 ....이(가) 아니다.
  아무 것에도 .....하지 않다.
* te: 너를, 너에게
* turbe: turbar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형 들뜨다, 불안해하다, 마음을 설레게 하다.
* espante: espantar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형/ 놀라다, 무서워하다, 겁내다, 두려워하다.
* todo: 모든 것이 ...이다. 모든 것이... 하다.
* se: 3인칭 재귀 동사 (어떤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동작이 스스로 이뤄짐을 나타낸다.
* pasa: pasar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지나가다, 통과하다, 넘어가다.
* muda - mudar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의견이나 성질 등이 변하다, 변화하다, 바꾸다,
* la: 여성형 명사 앞에 오는 정관사
* paciencia: (명사) 인내, 인내심, 참아 견딤.
* lo: 중성형 정관사 ....인, 그것의
* alcanza: alcanzar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에 이르다, 도달하다, 얻다, 이기다.
* quien: 누구, 누가, 누군가, ...하는 이
* a: 사람이나 사물의 대격 보어
  ...에게, ...를(을), ...로(으로), ...까지
* Dios: 하느님. 소문자로 dios 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神)
* tiene: tener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갖다, 소유하다, 차지하다. 모시다.
* le: 3인칭 단수 여격 대명사. 그에게, 그녀에게
* falta: (형용사)아쉽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 solo: 홀로, 다만, ...만으로
* basta: (형용사) 족한, 만족하는, 충분한, 흐뭇한.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시는 어떤 사본에는 빠진 것도 있어서, 이 시를 성녀 자신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누군가가 추가하여 지은 것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부분을 아무도 번역하여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의 문체나 정신이 성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필자가 많이 부족한 스페인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번역해서 아무 설명 없이 몇 년 전에 회보에 한 번 선을 보인 적이 있다.

가르멜 영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느님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영혼이 하느님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사는 정신' 인데, 성녀의 이 시에 그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난다.

세상을 달관한 사람들이 '제행무상(諸行無常)' 이라고 말한다거나,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자고 습관적으로 자기 위안으로 말하는 푸념이거나, 생각 좀 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삶의 지혜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가벼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느님께 대한 성녀의 굳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잘 나타난다. 시의 3절에 '풍요롭다' 라는 뜻을 지닌 '가멸지다' 라는 시어(詩語) 외에는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서 싯귀(詩句) 각 부분에 대한 해설을 생략한다.*

(36쪽에서)

가르멜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리하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처음의 어려움도 그럭저럭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지리한 장마 후에 상쾌하고 청량한 가을날이 오듯 이 어려움의 시간도 어느덧 지나가 버리리라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도 생산하고 이제 조금씩 많은 이들에게 백신의 혜택이 돌아가리라 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에 대한 고통과 원망보다는 이러한 시대적 징표가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찾아보도록 합시다. *

＊ 선교 ＊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양상륭(로사리오의 도미니코)신부

실업자 생활을 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어간다. 작년 정초에 중국에서 나온 후 진작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재작년(2019) 말에 기적적으로 구입한 산서성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꾸며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난 아직도 한국에서 의도치 않게 한가하게 실업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성직자와 또 신앙인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초유의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많은 묵상과 의문을 갖게도 된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소하고 작은 입자인 코로나19란 존재가 전 세계에 미치는 고통과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고 잔인하며 끝을 모르고 있다. 인류가 과연 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은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언제쯤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백신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만 그것들이 백신으로서 완전히 검증되고 또 상용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본다. 선교사란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자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의미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어지는 초대 사도 교회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이래 신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활절 미사가 있었을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구원의 메시지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이며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다. 비록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반드시 죽어야만 할 운명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는 이 생자필멸의 불변의 원칙에 속한 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리라 믿고 확신한다.

이렇듯 중요한 부활 신앙이기에 부활절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절정이고 따라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연하고 묵상하는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전례 축일이며 가장 거룩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다. 이렇게도 중요한 전례 대축일을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2020년에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는 신자들의 전례 참석을 금하고 성직자 중심의 전례로 대처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주일 의무도 관면해 주고 영상매체를 통한 비대면 전례를 참석하도록 격려하고 신영성체를 하도록 했다.

이건 충격, 아니 충격 그 이상의 사건이었다.

신자 없는 부활절!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미사성제에 신자들이 참여할 수 없다니!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며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켜온 이 소중한 전례,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전례를 교회는 과감히 신자들에게 불참석의 관면을 내린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미사성제이지만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시대에 공동체가 함께 하는 전례를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 악성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교회는 신앙의 의무인 주일 전례 참석보다는 사랑의 실천인 불참의 관면을 허락한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 중에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2020년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7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었고 그 중에 무려 160만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 간신히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직장과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건만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정말 그 분이 존재하거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특히 나나 내 가족이 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러한 절실한 의문을 갖고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께 도움을 빌고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과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분이 이 사태를 보고도 못 본 체하시고 또 그분이 사랑이 없어서 또는 사랑이 있어도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당신 뜻대로 우리 인간의 삶을 조정하고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인류가 그런 권한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왔던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생,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가?
환경 쓰레기와 생활용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함부로 버리며 소중한 우리의 생활 터전인 지구에 고통을 주지는 않았던가?
무수히도 많이 들어온 지구 온난화 현상, 남·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사라지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져서 근세기 내에 사라질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에 대한 소식도 한두 번씩은 들었을 듯하다. 하지만 남의 집 문제라는 식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 그 많은 경고와 호소의 외침들!

코로나19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자연들을 넘겨주시면서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자연 질서를 존중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며 하느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잘 다스리며 사용해 왔는가?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34쪽으로)

＊ 회원의 글 ＊

종신서약 준비피정에서

장혜영(예수의 데레사)/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사랑이신 하느님,

3년 만에 다시 찾은 인천 가르멜 수도원에서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처음 지원기로 왔을 때, 가르멜은 힘들고 피곤한 곳이니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살라고 하시던 엘리야 신부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신서약을 앞 둔 지금에서야 신부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 힘든 삶을 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마주하며 하느님께서 제게 이루신 기적을 봅니다.

학창시절 흔한 개근상 한 번 타본 적 없고, 무엇이든 시작하면 3개월을 넘기기 힘들었던 저를 이곳 가르멜로 이끄시어 6년 동안 단 한번도 '오늘은 월모임 안 가고 좀 쉬면 좋겠다' 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이 제집 드나들 듯 다닐 수 있었던 것 또한 신비입니다.

피정의 집에 들어서며 뽑은 말씀 사탕의 "이성을 말끔 씻어 믿음(신덕)에 터 닦게 하고, 기억을 말끔 씻어 바람(망덕)에 뿌리박게 한대도, 셋째 덕인 사랑(애덕)을 두고 의지를 말끔 씻지 않는다면 우리의 할 일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가르멜 산길」Ⅲ 16,1)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듯 했습니다.

지난 1년의 가르멜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가르멜에 오기 전에 제가 알던 하느님에 관한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은총들-지혜, 위로, 용기 등-을 비워내야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은총이 너무나도 많기에 제가 비워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역설 안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음을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제게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조차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일깨우시니, 저는 당신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느님, 저를 온전히 없애 주소서..."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기도' 중에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저를 가르멜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당신께 저의 사랑 담은 감사와 찬미와 흠숭 올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이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가르멜 산의 복되신 성모님과 가르멜의 모든 성인 성녀가 걸어가신 당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묵상글 ＊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윤원조(예수 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최근 신문에서 읽은 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내용이었다.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데 그 길은 넓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새삼스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순간 '내 자존심' 의 실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질투' 는 원죄 중에서도 가장 태생적 고질병과도 같은 것인지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창세기 4장, '카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 난, 죽음의 나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죄의 실체이다. 카인의 '질투' 이전에 등장하는 감정은 분노이다.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창세기 4,7)

하느님께서는 분노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발단은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행동보다는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살피시는 하느님은 그의 순수한 지향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반기신 것이다.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창세기 4,7)

하느님께서는 카인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회개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죄가 네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느님은 인간의 나약한 본성은 쉽게 죄를 선택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라고 일러 주신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판으로 꾀어내었다. 죄의 시작은 자아가 부추기는 격렬한 감정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카인은 '자아' 의 충실한 먹이가 되고 만다.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악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든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카인의 출발점은 '질투' 이지만 그 이전의 감정은 '에고' 일 것이다. 카인이 '자존심' 에 상처를 입은 이유는 그의 첫 마음이 이미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예물을 바치는 그의 지향이 순수했다면 그의 행위와 마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으로 '맺음' 을 하게 된다. 선한 지향의 특징은 그렇다.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루카 17-10)

자존심 대신, 자신의 나약함을 느낄 때마다 회개하는 진정한 '겸손' 을 지녔다면, 그는 하느님께 칭찬을 받는 아벨을 지지했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셨을 때는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자신이 지닌 사랑이 더 섬세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함에 대한 자기 성찰이지 않았을까?

창세기 4장 '카인과 아벨' 에서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하나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일러 주신다. '본성' 은 조절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본성은 항상 최선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아벨은 여기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타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도 같은 깊은 사랑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마태오 22,37-39)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신다.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다.

카인에게서 드러나는 자존심의 실체는 본능에 충실하고 상처 입은 자아를 들여다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카인이 안전하게 살도록 표를 찍어 주시고 먼 길을 떠나 보내셨다.

창세기 6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절대적 가치인양 포장된 일신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위한 갖가지 수단들은 상품화되어 경쟁적으로 세상에 선을 보인다. 빈부의 차이는 보다 세분화되고 격차는 심해져 가난한 이들을 공격한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피해자들이 벼랑으로 몰려 자꾸 떨어져 내리고 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또 다른 나에 의해서.

그 모든 중심에는 변형된 자아인 '탐욕'이 버티고 있다. 황금을 향한 집착이 파멸로 치닫듯이 '나'에 대한 집착인 '자존심'은 본인 스스로를 날이 선 무기로 만든다. 모든 것이 나의 욕구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계기나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곳에서 건강한 유대감은 찾기 힘들다. 왜곡된 관계 안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다.

본질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삶의 긍정적인 힘을 받는다. 하느님께서도 당신 안에 이미 공동체를, 관계성을 품고 계신다. 성삼위 하느님은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관계성의 가장 완전한 표본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질투로 눈멀게 하는 서로의 다름은 '틀림'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엇도 아니다. 서로를 경이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벨은 양치기로서 제물을 마련하고 카인은 농부로서 그의 제물을 마련하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대적인 것으로, 타인을 통해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나의 욕망으로 나와 주변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자존감이 지닌 '겸손'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고유성'을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이웃과 나누는 '착한 종'이 지니는 모습이다.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자존심에 굴레를 씌워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예의' 안에서 내가 그렇듯 그도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 43,4)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7)*

＊ 공동체 이야기 ＊

가르멜의 꽃핀 가지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이른 아침, 세우(細雨)가 내리는 고갯길을 넘어간다. 매월 둘째 일요일이면 사방에서 라 하브라 수도원(재미 한국 맨발 가르멜 수도원 THE KOREAN COMMUNITY OF DISCALCED CARMELITES)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월모임, 참사진의 고민과 노력으로 점진적인 연습 과정을 거쳐 어려운 시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든 시간이 은총이었음을 감사드린다. 양성단계별 카톡 그룹미팅을 시도했던 월모임, 여덟 달 만에 줌(Zoom) 화상 미팅을 통하여 전 회원이 함께했던 날은 반가움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종신서약 미사가 있던 연피정 마지막 날, 방역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에 소수의 회원만 수도원 대면 미사에 참례하고 대부분의 회원은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림으로 미사에 참례했다. 동영상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이는 방송 준비과정은 처음 겪는 일이기에 수선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한 정경들을 통해 가르멜 공동체의 지난 시간이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묵상하는 뜻 깊은 날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코리아타운 바오로 성당 지하 강당에서 <의인 열 명>을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의 삶으로 비유하신 박태용 요한 신부님의 첫 강의로 1996년 5월 10일 (금요일)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재속 맨발 가르멜회>가 창립되었다. 미국 관구 관할이었던 알함브라 소화 데레사 성당의 곁방살이에 얽힌 소중한 이야기들은 순수하고도 행복한 열정이었다. 구역별 주보성인 연극 경연 대회, 요한 신부님 회갑을 축하드리던 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유해를 모시고 서거 100주년 기념미사를 주관했던 초창기 시절부터 2014년 성녀 데레사 사모님의 지팡이 순례 미사에 참례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

한국 가르멜 미주 재속회 1회 입회

럼 펼쳐진다. 몇 년 전, 오랜 세월 지나 브루노 신부님과 그 자리에 다시 서니 첫 지도 신부님으로 모셨던 기쁨이 엊그제 일만 같았다.

엘에이 한인타운, 뽕나무가 있던 가정집에 처소를 마련했던 옛 수도원은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다. 작은 경당의 고요와 가르멜 성모님을 모신 창가에 늘 피어있던 보랏빛 바이올렛처럼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나성의 한 모퉁이에 가르멜 생가지를 뿌리내리기 위한 진통을 함께 겪으시며 먼 길 오가신 베르나르도 지부장 신부님과 장상 신부님들 생각에 눈앞이 아련해진다. 홀로 생활하시며 고생하신 신부님들의 어려움을 주춧돌 삼아 마련해 주신 지금의 라 하브라 수도원 성전에서 한국 가르멜 관구 승격 축하 미사로 성 요셉 신심미사를 봉헌 드리는 축제의 날도 있었다.

2010년 12월 첫 월모임으로 토요 팀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가 분리되고, 오월 야외 미사는 격년으로 축일 등 행사 때는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눈다. 어느덧 20주년 조촐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제 25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 수는 종신자 66명, 피양성자 24명, 단독 9명과 워싱턴 단독 6명으로 총 회원이 105명이다.(2020년 12월 현재) 우리 공동체 특징 중 하나는 부부 회원이 18쌍으로 36명이나 되며, 80대 종신자부터 40대의 입회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10구역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남가주 14개의 한인 본당과 5개의 미국 본당에 북으로는 산호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제 우리 공동체도 귀향회원의 명단이 늘어나니 새해 정월 월모임 후 양 재속회 선종 회원들을 위한 연도를 바친다. 달마다 소식지(뉴스 레터 : 2020년 12월 현재 96호)를 발간하고 있으며, 가르멜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카페 http://cafe.daum.net/carmelusa <미주 가르멜 가족>을 통하여 동부 회원들은 물론 타 지역 가르멜 회원들과 영적 양식의 공유와 정을 나누고 있다.

미주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이라면 수도원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성당과 강의실, 마당을 가로질러 내정이 있는 수도원이 한 울타리 안에 가르멜 가족으로 살아간다. 2005년 10월 15일, 수도원 축성 미사는 우리 가르멜의 잔칫날이었다. 제대 양옆 십자무늬창 창호로 스며드는 안온한 빛 가운데 수사님들의 분향과 '성전 오른편에서'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수 예식의 장엄한 순간들 **"이날은 너희 주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 주시리라"**(느헤 8,9b.10b)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남가주 각 성당에서 오신 내빈들과 한국에서 오신 우리 가르멜 신부님들, 한국 수도원 각 공동체 대표로 수사님들이 방문해 주신 일이 감동이었음을 회상한다.

2006년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에 방문하신 루이스 아로스테귀 총장님을 모시고 우린 한복차림으로 아리랑을 불러 드렸다. 답가로 들려주신 서정적인 아름다운 스페인 민요처럼 온화하신 총장님은 자녀들을 찾아오신 자애로우신 아버지 모습이

소화데레사 성녀 연극(수도회 축성식)

셨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밤색 성모님 성의를 입은 <가르멜>의 한 가족으로 미국관구(California Arizona Province of Saint Joseph)와도 긴밀한 관계다. 관구장님께서 수도회를 방문하셔서 미사 봉헌도 해 주시고, 우리는 10월이면 미 관구 수도원인 El Carmelo Retreat House에서 강사 신부님의

2019년 연피정/ 미 관구수도원에서

지도하에 2박 3일 연피정을 한다. 마지막 날 종신서약 미사엔 신부님과 수사님이 도착하시어 함께 하신다. 마치 친정 식구 오신 듯 가슴 찡한 따스함이 차오르는 시간이다. 가르멜 신부님들은 때때로 한인 본당에 미사와 특강을 해 주시곤 하여 우리 가르멜 회원들도 본당 활동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성모님 뜰과 느티나무는 남가주 수도원의 상징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드리운 가지를 점점 넓혀 가는 느티나무 아래 정담이 오갔다. 축일 밤에는 달님이 고요히 내려다보고 밤은 깊어가곤 하였다. 연피정이 끝나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축하 파티를 연다. 손에 손을 잡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으로 노래하고 강강술래 흥겨운 가락으로 원무(圓舞)나 나선무(螺旋舞)를 춤추며 웃음꽃이 파도를 타는 순간들. 하늘길 날아와 밤낮이 바뀐 시차에도 내리 사흘 강의와 연피정 지도를 해 주신 강사 신부님과 수도원 식구들과 회원들, 축하 손님들 더불어 흥겨운 시간을 갖곤 했다. 올 종신서약 축하식은 모처럼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었기에 조심스러우면서도 행복했던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단어 한 마디에도 통하는 말이 기억나는 분이 있다.

유양입니다(Miss You). 본질. 모두가 사랑이에요. 얼굴. 씨 유 어게인(See You Again) 등등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심전심으로 알아챈다는 것은 사랑의 시간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는 우리 공동체가 엮어온 이야기다. "어느 좋은 날 구름이 해를 살짝 가리면 저를 기억해주세요." (본원으로 떠나시는 신부님의 작별 인사) 오늘이 바로 남겨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구름이 살짝 해를 가린 좋은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만남도 작별도 기쁨도 축하도 지상에서의

수도원 뜰

영 이별도 '아무것도 너를 . . .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을 봉헌 드린다. 'Solo Dios Basta!'는 우리 공동체의 영가이며 축가요 이별가요 영원히 부를 찬미가이다.

낯선 생활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닥쳐온 어려운 코비드 사태를 맞아 외롭고 고단한 사막에서 이돈희 보니파시오 원장 신부님은 땀을 많이 흘리셨다. 2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셨다는 지붕 공사와 강의실 등 새롭게 단장을 하느라 애쓰신 원장 신부님은 지금 고국 방문 중이시고, 수도원의 새 식구로 사제수품 10주년을 맞으신 유스티노 신부님은 화상 미팅 월모임을 통해 만나 뵈었다.

"안녕하세요.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다들 환영해 주시고, 여러 면에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의 조그마한 시간과 공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 2020년 대림절에 / 백성현 성모 성심의 유스티노 신부님의 전언

디아스포라의 타국살이에서도 하느님 현존 안에 외롭지 않음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다. 한국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으로 이국에서 뿌리내린 가르멜의 한 가지로 꽃을 피우는 우리.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의 이번 회기의 비전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하느님과 하나 되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가 되기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올리며 새로운 날을 마중한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지도해 주시고 영혼의 목자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신부님들과 수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 전에 올린다. 새해 순백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삼백예순다섯 날, 하느님 나라를 향한 가르멜의 여정인 눈밭을 똑바로 걸어가라 하신다. 하느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 성심의 사랑에 기대어 가르멜의 성모님과 성 요셉, 가르멜의 모든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의 사랑을 바치오니.

우리는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쳐야 합니다.

-창립사 4장 8절

2020년 종신서약 미사 후

* 회원의 글 *

하느님 찾아 떠난 루치아에게

서울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오늘 처음으로 성북천 길 산책을 혼자했거든
단풍은 이미 가을이 짙게 묵어 현란한 색채들의 향연도 차츰 색을 잃어가는 11월 중순
햇살 부신 이런 날
하늘이 너무 맑아서 걷는 내내 영혼이 정화되어가는 느낌이었지
잠시 고통 중에 있을 너를 생각했지

너의 선종 소식은 집에 와서 알았고 놀라진 않았어
가르멜로 불러주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분도 하느님이시니까
가톨릭 신앙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살아온 생애 내내 불완전해서 생긴 허물일랑 누군들 없었겠냐만
루치아 너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살아온 그 세월들을 다 아신 주님은 이승에서 견뎌낸 고통과 보속들 어이 모르실까

네 마음 속의 기도와 염원이 맑고, 신앙 안에서 수고한 그 자락들 다 내려놓고 떠난 너
우리 가르멜인들이 염원하는 하느님 뵈옵는 궁극의 정원으로 이렇게 하늘 맑은 날
훌훌 떠났을 너를 그만 아파할게
친구야, 애썼어
긴 생애 동안 너의 자락들을 부끄러워 말고 편히 가렴
널 보내고 아플 가족들을 위로하고 영혼의 궁방들을 건너건너 합일의 깊은 영성 안에서
하느님 가족으로 행복하렴
너를 알고 참 행복했어
우리의 우정과 좋은 인연들 안에서 기억하면서 기도할게
가르멜 회원들의 기도가 네게 위로가 되리라 믿고 어차피 인간은 혼자 왔고 혼자 가는
숙명의 행로를 사는 거잖아
잘가렴 친구야
너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넌 분명 하늘길로 간다는 거 알아서 주님께 단단히 애원할게
우리 어느 날 또다시 만날 천국 정원에서 기다리렴
가르멜 재속 회원들을 위해 기도해주렴

안녕 루치아
잘 가거라
알러뷰 알러뷰

가르멜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안상숙 루치아를 위해 기도해주소서

＊ 회원의 글 ＊

“영적 지도자” 묵상 글을 읽고

임성미(마리아)/ 인천 성 요셉 공동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의 저술 동기를 “낮은 데에서만 하느님과 사귀는 사람”인 나와 같은 영혼들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이라고 하신다. 하느님 닮은 마음을 성인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선배 회원님은 가르멜에 오기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줄 아는 “어리석은 신심”에 불과했다고 하셨다. 선배 회원님의 이 고백에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하게 된다. 특히 교회 봉사활동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자아인식을 통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다. 나는 아직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생각들과 정돈되지 않고 쌓여 있는 마음조각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나에겐 더욱 더 사랑 가득하고 단순하며 소박한 마음과 결단으로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분별력과 학식, 체험을 갖추신 가르멜 신부님들의 강의와 저서 등을 통한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오래전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본당 주임 신부님의 강론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 말씀들 중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묵상의 소재가 되는 것들이 많았다. 미사시간에 듣는 강론과 내가 소속된 봉사단체, 레지오 활동 내 영적지도자의 말씀시간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혼란스러웠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께서는 마치 나의 고민과 마음 속 물음들을 알고 계셨다는 듯 강론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다. 미사 강론 말씀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훈육이 간혹 있었다. 나의 양심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그 말씀들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있어서 교만함과 자만심, 둔하고 굳은 마음을 깨치는 돌이 되었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낮춰짐을 느끼고 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까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미사포로 훔쳤던 날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런 날들이 내 영혼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불편하고 부당하다 느끼는 몇몇 신자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 그들은 상처를 받고 냉담하거나, 다른 성당에서 미사를 참례한다고 했다. 이 소식들에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수련자의 위치에 있는 나로서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지도를 받아들이며 순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나에게 정말 다행스럽고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사모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사부 십자가의 성 요한을 비롯한 많은 가르멜의 성인 성녀들께서 이미 걸어가신 완덕의 길을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지금도 가르멜 신부님들이 강의와 저서들을 통해 성인들의 영적 유산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리고 월모임의 나눔시간과 구역모임의 영적나눔, 아가페에서 재속회 선배 회원님들이 나누어주신 가르멜인의 삶의 체험들을 통해 이미 충만한 영적지도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느님 사랑의 완전한 일치”라는 영혼의 최종목표를 향한 가르멜인(人) 한 분 한 분의 충실한 삶이 나의 영적지도자이다. 또한 그분들을 통해 당신께로 이끄시는 하느님만이 영원한 영적 스승이시다. ＊

＊ 교육 후기 ＊

2020 한국관구 참사회 교육

관구 참사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채, 미루고 미루어진 전국 참사 교육 날짜를 유행이 다시 온다는 가을 길목에 예약을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며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좁은 틈을 비집고 2주에 걸쳐 2회의 모임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느님의 허락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인일실 행복한 독방을 사용해야 했고, 180명이 들어가던 강의실엔 거리를 두고 90명이 자리하였고, 식당에서도 한 식탁에 지그재그로 두 명이 앞자리를 비운 채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때맞추어 대령하는 식사 시간은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발열체크, 손 소독으로 시작된 회원 맞이에서부터 관구장 신부님을 선두로 관구 참사회가 함께한 회원 배웅까지 아슬아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끝나고도 사흘은 지나봐야 안심할 수 있다 하시는 신부님의 속은 많이 타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 탈 없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첫날 관구장 신부님의 개회 미사로 시작 후 브루노 신부님의 "협상과 조정"을 주제로 첫 강의가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지역별로 협조 신부님을 모시고 그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실시한 협조 신부님과의 만남 시간은 모두들 만족해 하였습니다.

둘째날, 두 번째 강의는 이인섭 필립보 네리 신부님의 "순명과 참사회 운영"을 주제로, 셋째 강의는 서봉교 예로니모 신부님의 "기도와 재속회원의 삶"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점심과 한차례 나눔 후에 넷째 강의로 박영진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의 "신심행위와 재속회원의 삶"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관구장 신부님의 "개정 회칙에 따른 참사회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짤 때에 회원들의 연세를 고려해 가능한 시간 여유를 두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진행하려 하였지만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의 일정으로 둘째 날의 네 번의 강의와 두 번의 나눔은 꽤 버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관구 참사회도 회원들의 나눔 시간마다 관구장 신부님과 만남, 협조 신부님들과의 만남으로 쉴 틈 없이 모두가 바빴던 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침 식사 후 나눔 발표 시간이었는데, 세 번에 걸쳐 시행한 나눔을 들으려니 충분한 내용을 공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1차 교육이 끝난 후, 협조 신부님들과 관구 참사회가 함께 평가하고 조정하여 2차 교육 때에는, 첫째 날 저녁 나눔 시간을 직책별 나눔을 통한 정보 교환 시간으로 하고 둘째 날의 두 번째 나눔을 협조 신부님과의 만남 시간으로 바꾸어 진행하니 훨씬 안정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 차례의 교육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은 내용의 강의를 두 번씩 해주시고 두 번의 나들이를 마다하지 않으신 관구장 신부님과 협조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의 샘

밤이 오면 뼈와 살이 아파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한참을 바라보면 처절하게 혼자라는 느낌 속에 빠져듭니다. 생각으로 진정되기 어려운 몸의 고통이 두꺼운 벽처럼 앞을 가로막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더운 한숨이 일그러진 미간 사이로 나오는 듯, 한 순간 눈이 감기고 촛불은 사라집니다. 아픔을 견뎌야 하는 길고 먼 밤의 길을 걷다보면 아름다운 몽상의 시간을 노래한 어느 철학자의 그림자처럼 촛불은 고독의 문을 열어주고 아득히 높은 곳과 연대가 가능한 지평으로 안내합니다.

그날 밤처럼 떠난 겨울 순례길, 낙엽 쌓인 황량한 순교자의 무덤 앞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 밝혔습니다. 거룩한 삶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한적한 분위기에 취했지만, 한편 세속의 욕망 가득한 삶을 소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해답 없는 내일 생각이 불안으로 자리 잡아 떠나가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혼돈이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간직했던 살아오고 살아갈 가치와 의미의 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미련 가득한 날들을 살고 있는데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좌절과 실패의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른 것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수치스런 알몸의 내 모습을 비추는 촛불은 하늘 저곳과 욕망하는 이곳을 오고 가는 나를 동반합니다.

성가신 세상의 아우성을 피해 이곳 무덤 앞에서 촛불 하나 밝혔으나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누구에겐 성가신 소리가 될 이 세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 간 거리, 그 사이를 점검할 때마다 고민하고 멈춰야만 하는 시간이 힘들고, 당부가 강요로 들릴 때마다 올라오는 반감과 아픈 소리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우리-사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적응이라고 합리화하겠지만 언젠가 드러날 의미와 가치를 믿고 희망하며 당신과 나,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구유를 밝히는 촛불, 그러나 신음하며 아픈 이 밤에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은 촛불도 별빛도 아닌 구유 속 당신의 모습입니다.

"묵상에 힘쓰십시오. 묵상을 못 하겠거든 구송기도나 독서나 주님과의 대화를 하십시오. (...) 순명이 없는 한, 관상생활은 물론 활동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은 아주 확실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완덕 18,4-8)

구요한

2021년 3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재속 가르멜회

* 범위: 제21장 해설: 기도 논쟁

『완덕의 길』 중반에 위치해 있는 21장에서 성녀는 기도 논쟁에 대해 전했다. 당시 이 논쟁은 관상가와 영성가에 대적해서 신학자와 종교 재판관들이 일으킨 것이다.

『완덕의 길』의 독자 수녀들인 성 요셉 가르멜의 수녀들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대담하게 기도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성녀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격려했다. "틀어박혀서 싸웁시다."

1. "따님들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성녀는 『완덕의 길』 최종본(바야돌리드 본)에서 초고(에스코리알 본)에 나온 두 장을 21장을 통해 하나로 묶어서 소개했다. 여기서 성녀는 수녀들에게 덮어씌우려 드는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내도록 간청했다. "자매들이여, 이런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10절). "기도 외에 딴 길이 있다고 누가 말하거든 속을까 조심하십시오"(6절), "누가 이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거든 오히려 말하는 그 사람을 위험 자체로 보고 멀리하십시오"(7절).

"아마도 그것은 악마가 공포심을 조작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꾸러뜨리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7절). 성녀는 그런 신학자들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았다(완.에 42,5).

그것은 그리스도교 영성사를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특히 '관상' 과 '활동' 간의 갈등이 서려 있는 긴장 관계를 말한다. 이 긴장은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움직이는 추처럼 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일화에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늘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성녀 데레사와 그를 뒤따르던 가르멜 수녀들은 관상과 활동이라는 두 진영 간의 긴장이 극도에 달했던 시대를 살아내야 했다. 당시의 분위기는 한편으로 루터주의자들을 주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관상가들을 주시하며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2. 성녀의 개인적인 경우 그리고 성녀가 논박하게 된 이유들

여기서 성녀가 그간 체험했던 일들을 몇 개의 중요한 사건으로 압축해 보기로 하자.

-마흔 즈음에 성녀가 체험한 강렬한 기도와 하느님에 대한 신비 그리고 신비적인 은총들은 성녀로 하여금 특별한 관상가이자 확신에 찬 기도 수행자, 그리고 기도를 권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 말하자면 성녀는 "기도하는 교회(Ecclesia orans)"를 구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성녀가 몸담고 있던 카스티야를 비롯해 스페인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반여성주의' 와 '정통' 이라는 두 가지 미명 아래 모든 여인에 대한 전면적인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쇄물과 더불어 루터주의가 급속히 번져 갔던 상황은 급기야 통속어로 된 모든 책들에 대한 의구심과 제재 조치로 이어졌다.

-결국 1559년 종교 재판소가 공포한 교령은 모든 기도 관련 서적들을 제출하도록 강제했다(자 26,5). 또한 신학자들은 성녀

에게 영성체와 기도를 금했으며 성녀의 영성생활에 개입하여 이로써 성녀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

-당시 성녀는 세 가지 사건을 겪었다. 기도 관련 서적을 압수당한 일, 영성체와 기도하는 것을 금지당한 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일.

그러나 『완덕의 길』을 쓰고 있는 지금, 성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성녀를 따르던 독자 수녀들에게 기도 또는 관상 생활의 가치를 거슬러서 또는 진지한 교리적인 양성의 필요성을 거슬러 나쁜 선입견을 갖게 했다.

- "그들은 악으로부터 해방되려다 선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이렇듯 나쁜 의도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악마의 소행임이 아주 분명합니다"(8절).

3. 입장을 취함

여기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성녀는 수녀들이 두려움을 떨쳐 버리도록 촉구했다. "억지로 여러분에게 불어넣으려는 두려움에 결코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5절). 성녀는 그들이 기도에 대한 "숭고한 생각"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성녀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즉 기도는 우리 임금님께서도 걸으셨던 왕도(王道)로서 확실한 길이라고 가르쳤다(5절). 기도는 천상으로 인도해 주는 신비로운 여행이자 왕도이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보물과 생활한 물을 얻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1~2절).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기도 외에 딴 길이 있다고 누가 말하거든 속을까 조심하십시오"(6절).

-성녀는 자신의 수녀들이 "복음의 말씀", 특히 주님의 기도에 바탕을 두고 이 여정을 시작하길 바랐다. "책이 없어도 어느 책보다 훌륭한 '주님의 기도'만 열심히, 또 겸손되이 묵상하면 다른 책이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3절).

-그러나 단지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실제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일대 결심을 갖고 말이다. "이 길을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굳게 다져진 일대 결심(一大決心)입니다"(2절).

-마지막 수칙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과 겸손을 간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벼이 보고, 어머니이신 성교회가 가르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른길을 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10절).

4. 이 부분의 운명

성녀는 논쟁적인 이 부분이 신학자들의 키질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승인이 없다면 『완덕의 길』원고가 독자들의 손에 쥐어질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성녀는 자신의 작품에서 아무것도 '주해' 하지 않겠다고 서둘러 알렸던 것 같다.

하지만 여기 21장에서 "책들을 빼앗아 가는" 이들, 다시 말해 그 책들을 금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버린 이들에게 대항한 성녀의 외침은 단호해 보인다.

반면, 검열관은 성녀의 원고에서 모든 삽입구를 삭제했다. 그리고 여백에 다음의 글을 첨가했다. "기도서들을 금지시킨 종교재판관들을 나무라는 듯이 보인다." 결국 그렇게 지적된 부분은 검열에 걸렸고 『완덕의 길』최종판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완덕의 길』을 처음 인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암시들을 뿌리째 삭제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텍스트가 그 후의 여러 출판본에 담겨지게 됐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발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영성강좌

*** 2021-22 가르멜영성코스 II 모집요강 안내**

9명의 교수진, 16과목, 과목별 16시간 수업
2021년코스 접수기간: 2021년 2월 2일 ~ 8일까지
과목별 접수기간: 2021년 2월 9일 ~ 마감시까지
(수강신청서 다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carmelcenter.kr)

교 과 목		
과정 I	기초영성	신약성경 영성, 영성사(교부시대 영성, 중세시대 영성, 근대-현대 영성), 평신도 영성, 영성생활과 심리
과정 II	예수의 데레사	서간집과 소품집, 그리스도 체험, 기도영성, 선택1(생애)
과정 III	십자가의 성 요한	소품집과 시, 그리스도 체험, 영성과 인간이해, 화해와 기억의 정화, 선택1(생애)
과정 IV	가르멜의 성인들	에디트슈타인과 여성 마리아, 엘리사벳의 그리스도 체험, 소화데레사 영성의 근본 주제들

수 업 일 정						
년도	월		과 목	교수 명	요일	수업시작일
2021년	1학기	3월	신약성경 영성	이혜정 수녀	화	3월 2일
		4월	교부시대 영성	최원오 교수	금	4월 2일
		5월~6월	1-2교시 중세시대 영성	전영준 신부	화	5월 11일
			3-4교시 평신도 영성	최우혁 교수	화	5월 11일
	7월,8월 방학					
	2학기	9월~10월	1-2교시 근대-현대 영성	윤주현 신부	화	8월 31일
			3-4교시 에디트 슈타인과 여성 마리아	최우혁 교수	화	8월 31일
		11월~12월	오전 선택: 예수의 데레사의 생애	박정오 신부	화	11월 2일
			1-2교시 예수의 데레사의 서간집과 소품집	윤주현 신부	화	11월 2일
			3-4교시 예수의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	김광서 신부	화	11월 2일
	1월,2월 방학					
2022년	3학기	3월~4월	1-2교시 예수의 데레사의 기도영성	박정오 신부	화	3월 1일
			3-4교시 소화데레사 영성의 근본 주제들	정인숙 교수	화	3월 1일
		5월	오전 선택: 십자가 요한의 생애	김광서 신부	화	5월 10일
			십자가 요한의 소품집과 시	이인섭 신부	화	5월 10일
		6월	영성생활과 심리	김인호 신부	화	6월 7일
	7월,8월 방학					
	4학기	9월~10월	1-2교시 십자가 요한의 그리스도 체험	김광서 신부	화	9월 6일
			3-4교시 엘리사벳의 그리스도 체험	윤주현 신부	화	9월 6일
		11월~12월	1-2교시 십자가 요한의 영성과 인간이해	윤주현 신부	화	11월 1일
			3-4교시 십자가 요한의 화해와 기억의 정화	이인섭 신부	화	11월 1일

* 매주 화요일 수업 (예외 '교부시대 영성' 은 매주 금요일)
* 4교시 수업: 1교시 13:00~13:50/ 2교시 14:00~14:50/ 3교시 15:10~16:00/ 4교시 16:10~17:00
* 수업 후 별도로 센터 미사 있음 17:10
* '오전선택' 과목은 일회성 2시간 수업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피정 및 미사

* 첫토요 성모 신심: 매월 첫째주 (토) 10:30 미사
* 성시간: 2월 27일 (토) 매월 마지막 주 (토) 13:30 ~ 16:30
  주제: 희망/ 주례: 이범규 세례자 요한 신부 / 영성강좌, 성체조배, 미사
* 청년 피정: 2월 13일 (토) 14:00 ~ 16:00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청년피정 신청/이름/세례명/연락처)

비대면으로 만나는 가르멜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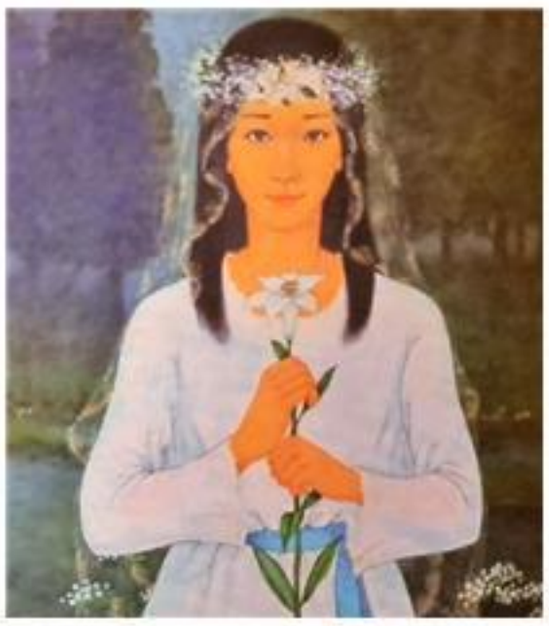
* 유튜브 '가르멜영성문화센터'를 통해 가르멜 신부님들의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 '가르멜영성문화센터' 검색 후 구독

가르멜 뜨락	
강 사	주 제
윤주현 신부(인천 가르멜수도원)	가톨릭 영성가들의 삶과 영성 ① 영성의 원류, 오리게네스 편
김광서 신부(가르멜영성문화센터장)	① 영성과 영성생활 ② 가르멜의 영적 여정 ③ 마구간과 구유 영성
김석영 수사(인천 가르멜수도원)	소화데레사의 엘리베이터 영성
매주 목요일 유튜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채널을 통해 강의가 추가됩니다.	
가르멜 성시간 강좌	
신호준 신부(인천 가르멜수도원)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김광서 신부(가르멜영성문화센터장)	마구간 영성

2020 명사 초청 특강	
강 사	주 제
윤주현 신부(인천 가르멜수도원) 조학균 신부(서강대 평생교육원장)	가르멜 성인들과 성경 묵상 전례와 그리스도인의 삶
김영문 신부(광주 가르멜수도원장) 양승국 신부(살레시오회 전관구장)	소화 데레사의 영적 성장의 길 성모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없다
김영선 수녀(광주 가톨릭대학 교수)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마태14,27)
김광서 신부(가르멜영성문화센터장) 김인호 신부(대전 가톨릭대학 교수)	가르멜 영성에 따른 올바른 신비체험의 식별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
박승찬 교수(가톨릭대학 철학과 교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의 멘토 아우구스티누스
박정오 신부(광주 가르멜 학생지도 신부) 송봉모 신부(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영혼의 성」에 따른 예수님 닮기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김용은 수녀(살레시오 영성센터장)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마음 돌봄 영성
강유수 신부(광주 가르멜수도원) 김형신 신부(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들 가르멜 성인들과 함께 맞이하는 성탄

※ 자세한 문의사항
홈페이지 carmelcenter.kr 접속, 센터사무실 010) 4149-1853, 02) 6951-1101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나, 이런 여자예요.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남과 여, 아니 신랑과 신부다. 신랑의 캐럭터는 참으로 다채롭다.

성장배경을 볼라치면, 변변히 내세울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엄마는 걷다가 우연히 절대자에게 길거리 캐스팅된 여인이다.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자란, 이른바 정서적 인텔리 가정.

약한 자 못 지나치고 생명 위태로운 자, 자동반사적으로 달려가 구하는 남자. 따르는 사람이 많다 하여 우쭐대지 않고, 특히 눈 먼 이와 문둥병자, 세리와 창녀를 바라보던 눈빛은, 가히 블랙홀이다. 내미는 손은 부드럽고, 성큼 내딛는 발걸음은, 세상을 울린다. 정의와 공평이 민들레 홀씨 같아 방방곡곡 퍼지고, 가슴은 죽은 자 살리는 사랑과 연민의 컨테이너다.

어디 나와 보시게나. 이보다 더한 캐럭터 있으면…. 이토록 잘나고 완전한 양반이, 이다지도 바쁘게 뛰어다니는 양반이, 눈 못 떼고 꽂힌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기름진 포도밭 정원의 가르멜 여인. 그 남자의 신부다. 정배라고도 불린다. 내가 그 남자의 신부가 된 배경을 말하자면 기가 막히다.

허무한 세상, 내 힘으로 기 쓰며 살자니, 밑천 떨어진 장사꾼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파국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고 입산한 가르멜 등반길. 내 살아온 죄와 부덕함이야 하늘이 다 알 테니 저울에 달아봤자 그 남자 마음만 심란하겠다.

때로는 헉헉, 단련의 발걸음! 때로는 흑흑, 위로의 옷자락! 믿음 희망 사랑의 길, 희고 푸르고 붉은 저고리 철철이 입혀주신 그 남자의 자비에 넘어가 지금까지다. 수련 시절, 그 남자 내가 선택한 줄 알고 뻐겼건만, 내가 선택받았다 하니 어리둥절 믿기 어려웠다. '내가 어디가 좋아서? 뭘 잘했길래.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 걸까?'

종신 면담하던 날, 감실이 거울 같았다. 그 남자의 얼굴에 비친 나의 얼굴. 옴마야!

자격미달에 자격지심, 불완전함에 낮은 자존감, 긴 수련 여정 거쳤건만, 내 영혼은 여전히 1궁방. 먼지 쌓인 영혼의 밑바닥이 훤했다. 자아인식 하라더니 비참인식, 실망인식이 웬 말이람. 이대로 무슨 혼인이랴. 양심상 그럴 순 없다.

하지만 그 남자, 나를 선택했고, 행복하기까지 했으니, 손해 보는 장사 한 두 번도 아니고 참, 오지랖이 열 폭이다. 그리고 꿈을 꿨다. 허름한 지하 단칸방. 빛이 들지 않아 축축했고 곰팡이가 군데군데. 반갑지 않은 꽃을 피웠다. 좁은 부엌엔 바닥도 싱크대도 더러웠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대, 나 왔소. 문 좀 열어주오."

몇 번 만나 사귄 그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연락도 없이 찾아오다니,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안 돼요."

자동반사적으로 나온 이 한마디, 억수로 깊은 뜻이 담겨있었다.

'저는 당신의 여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직업도 명성도 재산도 인품도 다 갖춘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래요? 당신의 부모님이 알면 반대하실 게 뻔해요. 그러니 가세요 제발.'

그러면서 내 손은 뒤를 향해 있었고, 행주로 찌들어버린 싱크대 문짝을 닦고 있었다. 그 남자가 불쑥 들어올까 봐 몰래 말이다. 내 비참한 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 남자. 참으로 고집스럽다.

"어서 문을 열어 주오. 나는 그대만 있으면 족하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소. 오직, 그대만…. 그대의 존재만이 내게 필요하오."

지금 생각해도 생생했던 꿈. 깨어나 생각하니,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모든 걸 완벽히 갖춘 부잣집 남자가, 평범한 여자에게 맘이 꽂혀, 적극적으로 청혼하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부모님은 아들이 미쳤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떼어놓으려 하고…. 그랬다. 나는 무지하게도 그 남자의 사랑을, 흔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받아들였던 거다.

그 남자의 수준에 내가 맞춰야 하고, 비슷한 인격에, 형편도 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를테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자격이 부여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랑 말이다. 오산이었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고 위대한 그 사랑이, 값싸게 왜곡 당한 것이다. 꿈속에서 애절했던 그의 눈빛과 표정, 오직 당신만 있음 된다며 문 좀 열어달라던 그 촉촉한 목소리. 지금 되뇌어도 가슴이 뻐근하다.

그때의 그 남자는 검은 양복차림이었고 근사했다. 완벽, 완전. 그 자체였던 기억이 난다. 뭐하나 내보일 것 없던 가난한 신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두렵고, 또 실망시켜서 버림받을까 봐 무서웠거늘, 그 남자는 이미 신랑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마련해놨던 것이다. 멋진 이 남자가 바로 가르멜 정원의 내 신랑이다. 아가서의 그 신랑이고, 영혼의 노래(십자가의 성 요한) 살가운 주인공, 그 남자다.

이래봬도 선택된 여인,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여인. 걱정도 팔자라더니, 나는 지금 그 신랑과 행복하게 자~알 살고 있다. 때로는 신랑이 숨어 버려 어둠 속을 헤매지만, 믿음의 흰 저고리 입고 기다리면, '그대, 나 여기 있소.' 하고 깜짝 등장한다. 이 혼인의 길은, 비단 나만의 삶이 아니다. 가르멜에 갓 입회한 청원기와 수련기, 약혼을 상징하는 단순기 피양성자가 맞이해야할 희망이며, 종신서약자들이 깨어 살아내야 할 성소이며 정체성인 것이다.

재속가르멜인이 속한 포도밭 정원. 분주한 세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데레사 성녀를 비롯, 십자가의 성 요한, 소화 데레사,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에덧 슈타인 등 가르멜 성인성녀들이 그 남자의 사랑 속에 살았던 신부들이다.

그들 역시 가난했지만 '언제나 기뻐하

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테살5,16-18)을 봉헌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올 한해, 가난한 신부인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지면에 옮겨보기로 한 날,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 집필한 로망스를 읽게 됐다.

(로망스 4, 120,130) '본성과 그 자리가 이렇게 나뉘어도 그 모두 신부라 불리는 한 몸을 이루니, 바로 그 신랑의 사랑, 신부로 하나가 되네. 믿음의 희망으로 신랑 뫼시네. (로망스 4,225) 고된 멍에의 종살이에서 신부를 되찾으러…. (로망스4,260.265) 제 신부 찾으러 제가 가리이다. 그렇게나 시달렸던 그녀의 고통과 노고들을 제 스스로 짊어지면 그녀는 생명을 누리고 그녀 위해 제가 죽을 테니, 호수에서 그녀를 건져내어 당신께 돌려 드리리. '(십자가의 성 요한 전집, 서한규 옮김)

아는가? 이런 귀한 신랑이 내게 온 것이다. 신부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그 남자가 바로 내 정배, 내 구속자라는 것. 신랑 잘 만나 팔자 바뀐 신부들의 노래, 그 가난한 사랑이 온 세상을 적신다.

"저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신랑이시여! 오늘도 저는 일상의 선물 안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당신이 씌워주신 꽃 화관을 다시 쓰고, 흰 드레스(믿음의 저고리) 입고 봉헌된 자의 허리띠를 묶으니, 신부의 첫 마음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며 새 옷 입혀주신 이 신부를 맘껏 바라봐 주소서. 오직 너만 있으면 된다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수도회 소식

종신서원: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

로마에서 공부 중인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이 12월 14일에 로마에서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종신서원을 통해 온전히 가르멜 수도회 회원으로 합치된 수사님께서 앞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수도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도회 연피정

1월 10일 - 16일까지 마산 가르멜 수도원에서 수사님들이 모여서 연피정을 합니다. 이 피정을 통해 수사님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원 수사님들 착복식

네 명의 청원 수사님들이 12월 13일 저녁에 착복식을 하였습니다. 청원 수사님들이 하느님을 찾아 온 수도회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손순영 아기 예수의 보나
. 선종일 : 2020년12월6일 (향년89세)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청원기 수사님 착복식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 (총장님과 함께)

은경축

***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베네딕타 공동체

. 서약일: 2020년 10월 15일
. 서약자: 박현순 예수성심의 소피바라
방숙영 가르멜성모의 율리안나
유재임 예수성심의 마리나
한상희 예수의 안나
이태임 예수성심의 마리데레사
이태순 성요셉의 스텔라

*** 부산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서약일: 2020년 11월 10일
. 서약자: 이차숙 예수성심의 마리아
윤노미 겸손의 아녜스
조순석 예수성심의 루치아
양순덕 은총의 막달레나

종신서약

* 인천 성 요셉 공동체
. 서약일: 2020년 10월 18일
. 서약자: 심수섭 성령의 스테파노
김인숙 하느님 사랑 엘리사벳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